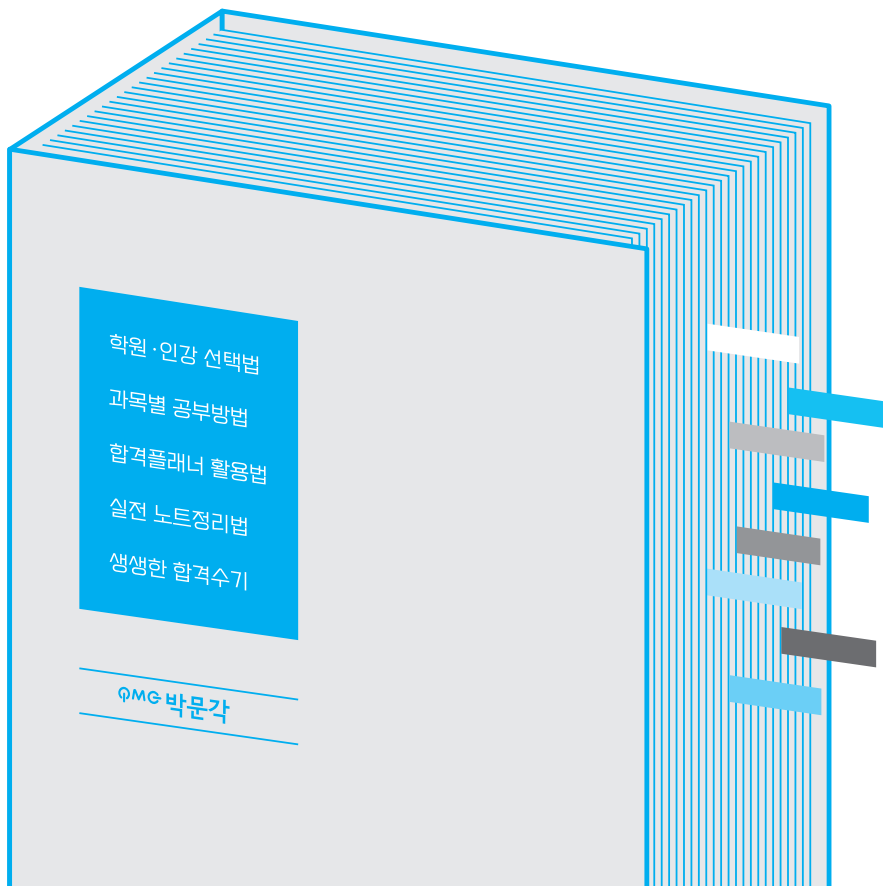


2019년도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을 향한 첫 걸음

공무원합격 가이드북



2019년도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을 향한 첫 걸음 공무원합격 가이드북

초판발행 2016년 6월 20일

2판 발행 2017년 2월 25일

3판 발행 2018년 2월 20일

4판 인쇄 2019년 1월 10일

4판 발행 2019년 1월 15일

지 은 이 PMG 수험전략연구소

펴 낸 이 박 용

펴 낸 곳 (주)박문각출판

등 록 2015. 4. 29. 제2015-000104호

주 소 06922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6 이데아 빌딩

대표전화 (02)3489-9400

팩 스 (02)587-5890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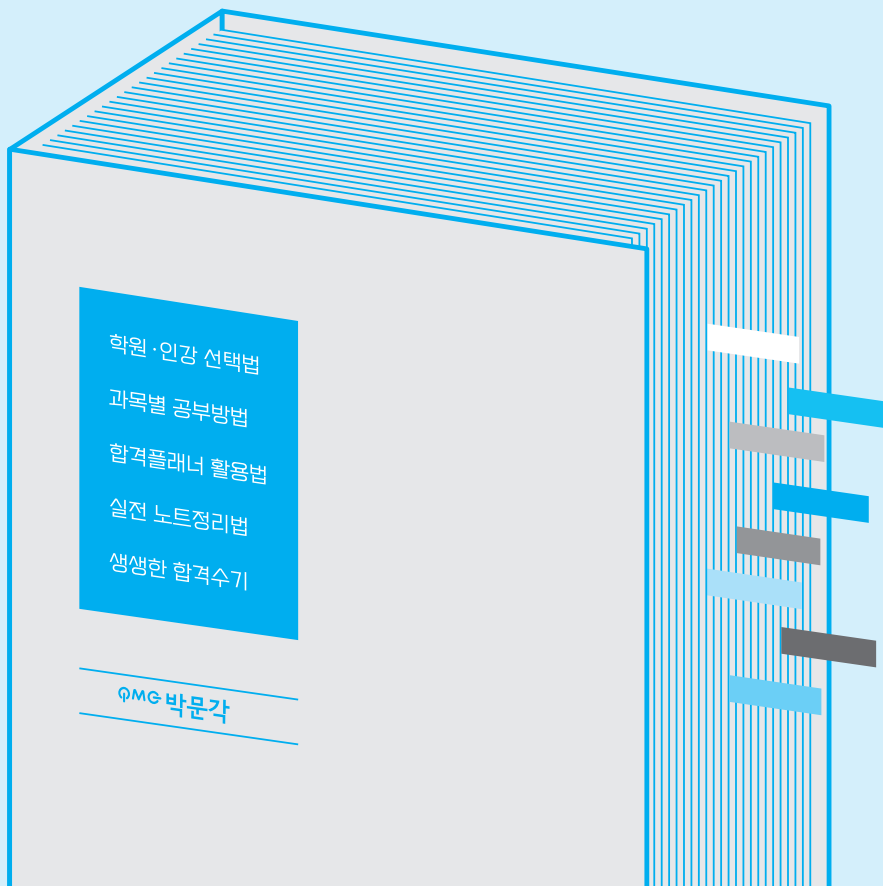
해당 도서는 비매품이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6151-883-1

2019년도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을 향한 첫 걸음

공무원합격 가이드북



머리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굳이 통계청 자료를 뒤적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권하고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도 공무원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신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합니다. 선망하는 직업인 만큼 공무원의 인기는 높고 시험의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 막 수험생활에 뛰어든 공무원 수험생 신분으로, 정글 같은 수험가 한복판에서 그 출발선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합격을 위해 수험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야합니다.

생략쥬페리는 말했습니다.

“계획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진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본격적인 수험생활에 앞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와 공부법에 대해 알고, 수험계획을 세우고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선택하여 공부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시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eface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과의 외롭고 긴 싸움의 출발선에 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따뜻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전략에 동참하고 싶은 바람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합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조언을 해주듯이 수험생의 편에 서서 정보를 주고자 고민하였습니다.

학원이나 인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담아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 과목별 공부방법, 합격플래너 활용법과 노트정리법에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합격플래너의 활용법과 공부법을 참조하여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땀을 운동을 기억할 것입니다.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멀리,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이제 구름판을 힘차게 디딜 준비가 되었나요?

구름판을 힘차게 디디고 앞에 놓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PMG 수험전략연구소 일동

I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 13
 -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 13
 - (2) 직업선호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 14
 -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 18
2. 공무원의 유형 및 공무원이 하는 일은? • 19
 - (1) 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될까? • 19
 - (2) 공무원이 하는 일 • 21
3. 공무원의 의무 • 25

II

공무원 시험 자세히 살펴보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 27
 -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서울시 공무원 포함) • 27
 -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 27
2.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 28
3. 응시자격 • 30
 - (1) 응시결격사유 • 30
 -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 31
 - (3) 학력 및 경력 • 32
 - (4) 응시연령 • 33
 -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33
 - (6) 신체검사 • 34
4.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 35
 - (1) 임용예정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 35
 - (2) 장애인 구분모집제 • 37
 -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 38
 -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39
 - (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 41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 44

5. 가산점 제도 • 46

- (1) 2017년부터 국가직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 47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제도 • 49
- (3)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시행 • 50

6. 시험 절차 • 50

- (1) 시험 공고 • 50
- (2) 시험 절차 및 시험 개요 • 51

7. 개별 시험 안내 • 53

-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 53
-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 56
- (3) 경찰공무원 • 66
- (4) 소방공무원 • 72
- (5) 입법공무원 • 77
- (6) 사법공무원 • 79
- (7) 우정직 공무원 • 79

8. 최근 채용시험 제도 개선사항 • 80

- (1) 9급 국가직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시행 • 80
- (2) 공채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제도 시행 • 83
-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 • 85
-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 86
- (5)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 • 88
- (6) 응시자 준수사항 변경 • 88
- (7) 인사조직직류 신설, 직렬명칭 및 시험 과목 변경 • 89
- (8) 합격자 명단 발표방식 변경 • 89
- (9)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89
- (10) 정보보호직 신설 • 90
- (11)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시 응시요건·가산점 증빙자료 제출 면제 • 91
- (12)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선발 • 91
- (13)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평균 2개월 단축 • 91
- (14)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개편 • 92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자!

1. 학원 200% 활용하기 • 95

-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 95
-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 96
- (3) 학원 선택 방법 • 98
-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 99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 101

- (1) 인강의 필요성 • 101
- (2) 인강 선택법 • 103
- (3) 인강 사용법 • 106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 108

3. 과목별 공부 방법 • 110

- (1) 국어 • 110
- (2) 영어 • 119
- (3) 한국사 • 128
- (4) 행정학개론 • 134
- (5) 행정법총론 • 142
- (6) 사회 • 151
- (7) 수학 • 161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 168

4. 공부계획 세우기 • 170

- (1) 공부계획, 왜 필요한가? • 170
- (2) 합격플래너 꼼꼼 활용법 • 172

5. 합격을 부르는 노트정리법 • 180

- (1) 왜, 노트정리인가? • 180

(2) 노트필기 준비물 • 181

(3) 실전 노트정리법 • 183

기본서 들여다보기(효과만점 기본서 활용법) • 188

IV

합격수기

다들 열심히 한 만큼 꼭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 191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을 믿으시고,
스스로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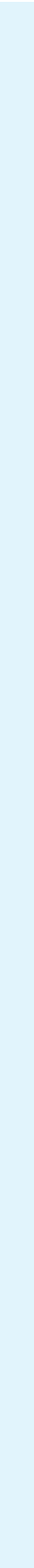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 208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 216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 217



이 책은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공무원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간일 이후로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전에 성공하는 비결은 단 하나,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

- 디오도어 루빈 -

”



공무원 시험에 들어가며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 공무원의 유형 및 공무원이 하는 일은?
3. 공무원의 의무

1. 공무원 시험 열풍, 이유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총 202,97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예정 인원은 4,953명이었다. 경쟁률 41대 1, 실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다. 고용 시장은 불안정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신입직원 채용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30대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보다는 공무원 시험 응시를 선택한 고교 졸업생, 인생 2막을 준비하는 40~50대 늦깎이 지원자까지 몰려 가히 공무원 시험 열풍을 만들고 있다.

공직의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연령을 불문하고 20만여 명의 수험생이 몰리고, 공무원이 되고자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 조작까지 저지를 정도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응시 연령 제한 폐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공무원 시험에 응시 가능한 연령은 하한선만 있을 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40~50대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리 해고 등 직장을 그만둔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수험생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뛰어난 합격 전략으로 인생 2막을 9급 공무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의 합격 수기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학력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한 시험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더러,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제도도 있다.

(2) 직업선호조사 1위 공무원, 그 이유는?

20대 이상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은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0%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진로를 공무원으로 꼽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업으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① 안정적인 정년 보장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직, 명예퇴직 등의 걱정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다. 일반 대기업의 경우 40~50대 사이에 퇴직의 압박을 받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이 55세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이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직업이라 할 것이다.

② 각종 수당 지급, 호봉제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9급 1호봉의 월지급액은 1,448,800원이다. 기본급으로만 보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는 이 기본급에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시간 외 근무 수당,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가산금, 정근 수당, 연가 보상비, 가족 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등을 합치면 결코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2,000~2,5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9급 1호봉 연봉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1년마다 급여가 1호봉씩 인상되기 때문에 잦은 연봉 동결이 이루어지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근속에 대한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다.

+ 자세히 보기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개정 2018. 1. 22.)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3,851,300	3,467,2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3,986,300	3,595,9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24,800	3,726,1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66,400	3,857,8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11,300	3,991,0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58,000	4,124,7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07,000	4,260,0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57,200	4,395,2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09,400	4,531,2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62,600	4,667,4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15,500	4,804,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473,400	4,945,3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32,300	5,087,5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791,700	5,216,1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30,900	5,334,8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54,400	5,443,6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164,100	5,543,9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261,700	5,635,2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49,200	5,719,8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27,500	5,797,0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499,700	5,867,4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564,000	5,932,1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18,400	5,99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39,7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085,9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5조 제4항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③ 폭넓은 복지 혜택

공무원의 경우 보수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적을지 몰라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추세이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기 계발의 기회 제공

공무원의 경우 일정한 선발 기준을 통과한 공무원에게는 국비로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비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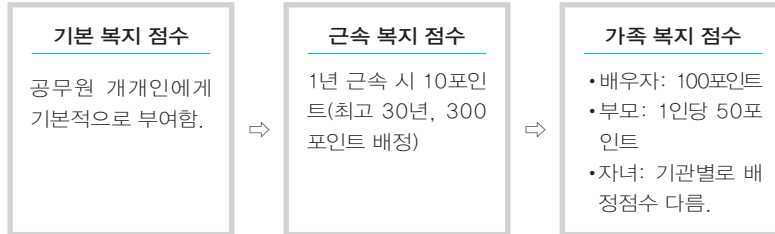
▣ 자녀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학에 진학 할 시 국고에서 학자금을 대어해준다.

▣ 복지 포인트 제공

공무원에게는 복지 포인트가 제공된다.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 차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포인트로서 매년 1월 1일 새롭게 부여된다. 지난해에 남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그 해마다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복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1포인트 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기본 점수에 근무 연수,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른 가족 점수, 근속 점수 등이 합해져서 개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자세히 보기 복지 포인트 구성 예시



□ 육아 휴직 제도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 휴직 기간 1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장점임이 분명하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많은 부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추세에서 3년의 육아 휴직 기간은 본인의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일례로 교사와 공무원 부부의 경우,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쓰고 남편의 휴직 기간이 다 끝날 때쯤 부인이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6년 정도 아이를 부모가 오롯이 키울 수 있다. 또한 일반 사기업 근로자는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반면 공무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것이다.

□ 주택 자금 대출 등

그 밖에도 낮은 이율로 주택 자금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임대 주택 제공의 혜택도 있다.

(3) 평범한 수험생이 합격한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매력적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최후의 승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 학창 시절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이나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험난한 수험 생활을 이겨내고 합격의 영광을 안은 수험생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합격 수기에서 합격생들은 말한다. 자신은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다고, 그들은 말한다. 자신이 남보다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1시간이라도 먼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고 말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공무원 수험 생활이 쉽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 매우 어렵고 혹독한 과정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고 합격하는 사람들은 결코 머리가 좋아서도,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닌 인내·끈기·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응시생들의 성실성을 점검하는 시험이며 적어도 1년 이상의 수험 구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은 제한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하며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를 맞힐 수 없게끔 출제하는 시험인 것이다. 이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 10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시험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2. 공무원의 유형 및 공무원이 하는 일은?

(1) 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될까?

공무원의 유형은 분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공무원은 임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고용되어서 어디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대통령(소속장관)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국가에 고용되어서 국가 기관에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 하겠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장과 그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지방자치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직 공무원은 주로 행정부나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을 의미한다. 권한과 책임의 강도가 세고 고도의 정치적,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선발되며 국회의 수석 전문 위원, 행정 각 부의 차관보, 비서관 등이 있다.

③ 입법 공무원, 사법 공무원, 행정 공무원

공무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입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회의 사무 직원인 입법공무원, 사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부의 직원인 사법공무원, 행정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행정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정 공무원이다.

(2) 공무원이 하는 일

공무원의 직군은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주로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일반적으로 5급, 7급, 9급으로 나누어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급이나 8급 선발시험도 시행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계급별·직렬별로 과목이 상이하다. 따라서 수험생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계급·직렬에 맞는 시험 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과목뿐만 아니라 난이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계급이나 직렬에 응시하는 것이 좋겠다.

아래에서는 7·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① 7·9급 공무원

7·9급 공무원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별로 각기 다른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일부 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한 뒤, 해당 시험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이라 할 것인데, 일반직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눈다. 직렬별로 7·9급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행정직군 공무원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복지,公安 등 폭넓은 일을 수행한다. 직렬별로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요 직렬별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행정직(일반행정)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 성격의 업무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행정직(고용노동)	노동현장의 근로감독과 산업재해 예방
행정직(선거행정)	• 공직 선거 및 위탁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거 관리 업무 • 정당 관리, 정치자금 관리, 공명 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등
행정직(인사조직)	공무원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등
행정직(회계)	회계 업무 및 결산 업무
직업상담직(직업상담)	고용센터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상담
세무직(세무)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관세직(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심리 • 관세의 부과·감면·징수
통계직(통계)	• 통계기준의 설정, 표준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분석·공표, 통계정보 자료의 유지 및 관리
감사직(감사)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확인 및 회계 감사 • 직무 감찰 업무의 계획·집행 • 감사 결과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의 지적, 개선 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 업무
사서직	• 도서관 운영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 도서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업무 • 도서관 자료 및 참고 자료의 수집 선택·수집 분류·목록의 편성, 보관 및 열람 업무
사회복지직	복지행정 분야의 관리 및 집행 업무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및 증진 • 외교 의전·여권 발급 등 외무행정 지원 업무

직렬(직류)	업무 내용
교정직(교정)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호 •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 구호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검찰사무직	• 범죄 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등 검찰사무 보조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마약수사직	• 마약 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 범죄수사·조치 • 마약·한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 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철도경찰직	• 열차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 내 승객의 안전 보호, 철도 장비·화물·승객의 휴대품 도난 방지 • 기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사건의 처리(열차 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 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 기술직군 공무원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다. 모집 인원은 적지만 관련 분야가 명확하여 비전문가가 쉽게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시험 과목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과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도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직렬(직류)	업무 내용
공업직(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산업기계·건설기계·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의 설비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
공업직(전기)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
공업직(화공)	무기 및 유기화학·생화학·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농업직(일반농업)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의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업무를 담당
임업직(산림자원)	-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 - 임산물의 이용·가공·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시설직(일반토목)	-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항만, 하천, 철도, 댐 등의 건설 공사 업무를 담당 - 농지계량 및 농지 확대를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업무를 담당 - 측량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시설직(건축)	-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기획·설계·시공·준공검사 업무를 담당 - 건축법규의 정비·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
전산직(전산개발)	-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유지 -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및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전산직(정보보호)	-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제·개정, 교육 계획 수립, 정보보호 실태 점검,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설 및 증설 업무 -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화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 담당 - 무선통신시설·전송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보건직	-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 - 검사, 방역 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 침입과 국외로의 전파를 막는 검역 업무를 수행 -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 환경위생 등의 보건 업무를 담당 -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
방재안전직 (방재안전)	- 각종 재난 대응 및 총괄 기획 - 지역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재난대응계획 수립 - 안전교육 및 훈련 - 안전점검 장비운영·관리

3.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상세히 나와 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성실 의무를 진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데 이를 복종의 의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것은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이다.

그 밖에 공무원은 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교 중립의 의무(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밀 엄수의 의무(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등을 진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이하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기존의 「공무원윤리현장」이 35년 만에 개정되어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세 분야로 핵심 공직 가치를 구조화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공무원윤리현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무원 시험 자세히 살펴보기

1. 공무원 시험 개요
2.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3. 응시자격
4.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5. 가산점 제도
6. 시험 절차
7. 개별 시험 안내
8. 최근 채용시험 제도 개선 사항

1. 공무원 시험 개요

(1) 국가직 공무원/지방직 공무원(서울시 공무원 포함)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합격 후 중앙 부처 또는 중앙 부처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시험 공고는 매년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에 방문하여 시험 공고를 확인해봐야 한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하급 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시험 공고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gosi.seoul.go.kr)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9급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6월에 치러진다.

(2) 공무원 채용시험의 종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채용시험에는 공개 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으로서 응시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가 없는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3조 등에서 정한 응시 연령에 해당하면 학력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일반적인 공개경쟁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응시 조건을 갖춘 지원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2.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기관

구분				관련법령	담당기관
국가공무원	행정부	일반직	3~9급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연구·지도직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소속장관(각 부처)
		특정직	검사	「검찰청법」 「사법시험법」	법무부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외교부 인사혁신처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법」	경찰청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법」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군인	「군인사법」	국방부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국가정보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국방부
			경호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실
	입법부	일반직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국회사무처
	사법부	일반직		「법원공무원규칙」	법원행정처
	중앙선거위	일반직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일반직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헌법재판소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 공무원 채용시험 정보, 이곳에서 확인하자

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는 해당 시행 기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과 제도해설·연간 채용시험 통계 및 각종 공지사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외 시험 단계별로 시험 일시 및 장소도 공고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고객센터(www.mpm.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문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살펴보면 된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로는 gosi.seoul.go.kr이 있다. 2015년 7월 6일부터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사이트를 통해 채용 정보, 공무원 직무 소개, 공직박람회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시험명	홈페이지주소	주관기관	담당부서
국가공무원 (5·7·9급)	www.gosi.kr gojobs.mospa.go.kr www.mpm.go.kr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 채용관리과 시험출제과
국회공무원	gosi.assembly.go.kr	국회사무처	인사과
법원공무원	exam.scourt.go.kr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군무원	www.recruit.mnd.go.kr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www.goarmy.mil.kr	육군	인사사령부
	www.navy.mil.kr/recruit	해군	인사운영처
	www.airforce.mil.kr	공군	인사운영처
경찰공무원	gosi.police.go.kr	경찰청(각 지방경찰청)	인재 선발계
소방공무원	www.nfsa.go.kr	국민안전처	인재채용팀
		중앙소방학교	
국가정보원 직원	www.nis.go.kr	국가정보원	인재개발센터
초·중·등 교사	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시험운영팀

3. 응시자격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메인 화면 배너 중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여 하위 메뉴의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 채용 중 선택한 다음 지원자들이 스스로 체크 리스트를 입력하면 지원자들의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가진단 주요 항목은 연령, 응시결격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유예, 시험 과락 등이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응시결격사유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 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복권이 된 사람은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연히 복권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도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군 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 제대 등은 응시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복무 전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후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하다. 따라서 군 미필자의 경우에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응시 결정사유의 존부확인도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실제 임용예정부처에서 실시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국적 취득여부 판단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경우에 한해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외국 영주권을 획득한 재외동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가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에 준하여 공무원임용자격이 제한된다. 「국적법」에 의한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용이 가능하지만 국가안보 등 일부 분야에서 임용이 불가하다. 단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분야 등의 합격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상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분야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중요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관계·통상교섭·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5.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교정·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 및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사업에 관한 분야
7.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한 경제·재정정책 등에 관한 분야
8.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시설·지역, 비밀 문서·자재 등에 관한 분야
9. 기타 업무특성상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3) 학력 및 경력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일반외교’ 분야 포함)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종래의 학력제한은 1973년에 폐지되었고 2005년부터는 응시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삭제하여 시험위원 등 다른 사람이 수험생의 학력사항 등을 알 수 없게 하였다(블라인드 면접방식). 즉,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통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4) 응시연령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시험별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만 20세 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만 18세 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 보호직)	만 20세 이상

※ 단, 소방공무원(공채)의 경우 응시 하한연령은 18세이다.

20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본인이 원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경찰(경찰청)·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계급 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 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5)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산직(전산개발)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처리기사	※ 7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시험에도 인정된다.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여부 판단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 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응시 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험생이 응시요건이나 가산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원서접수 시 가산자격증등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www.cq.or.kr)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니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등에 관해서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나머지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www.q-net.or.kr).

(6)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는 공채시험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실시하는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종전에 교정직, 철도경찰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다. 6급 이하 교정·철도경찰직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4.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모집제

(1) 임용예정기관·지역별 구분모집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근무예정기관 또는 근무예정지역별로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제는 지역출신 인재를 발탁하여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고지에서 공직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이다.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국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임용예정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신규 임용자들이 임용포기, 사직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기관별·지역별 구분모집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동일하지만 처음부터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응시한 사람끼리 경쟁하고 합격선도 그 해당 지역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역별 구분모집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당해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응시요건 및 주요내용 안내

모집단위	주요내용
7급 공채 기관 구분모집	• 행정(일반행정)직에서 우정사업본부 구분모집이 있으나 거주지 제한요건을 두는 지역별 구분모집은 없음. *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장애인 • 우정사업본부에 배치 임용
9급 공채 기관· 지역구분모집 (공통,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 연도 1. 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자격이 인정됨. * 거주지 요건에 대한 판단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기간(3개월 이상)을 확인하며, 원서접수일이나 필기시험일과는 관련 없음. •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 모집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해당지역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임용됨. • 기관별로 모집하면서 지역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지방소재 소속기관에 임용됨. (☞ 우정사업본부 강원 지역모집 → 강원도 소재 우체국)

근무예정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다만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시에는 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역별 구분모집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직(9급 공채, 지역구분모집)과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혼동하여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집단위에 지원함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수험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응시 원서 접수 전에 공고문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 거주지 제한규정 비교(예시)

국가직 9급지역 구분모집 응시자격	VS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경기도)
당해 연도 1.1.을 포함하여 1월 1일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당해 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 록된 사실이 없거나, - 당해 연도 1. 1.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특히 지방직 9급 거주지 제한요건은 시·도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국 모집과 지역별 구분모집 비교

구분	거주지 요건	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전국 모집	제한 없음.	임용예정부처의 사정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	자유롭게 응시지역 선택가능(응시지역은 주민등록지, 발령지역 등과 관련 없음)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지 (주민등록) 제한있음.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구분모집 지역 내의 국가 일선기관에 임용	구분모집 지역에서 응시 (여러 개의 시도가 하나의 구분모집으로 묶인 경우 그중 응시를 원하는 시·도 선택 가능)

(2) 장애인 구분모집제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등을 제외한 직렬에서만 시행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의 응시대상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일반인 모집에서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편의 지원 서비스 중 중증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는 장애인 모집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2%)을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단,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만 적용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해당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던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자신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보호)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교정·보호 직렬은 제외)과 5급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적용되며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된다. 그밖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한다.

● 적용방법

- 적용요건: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 필기시험합격자 결정방법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외교관후보자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요건	제2차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적용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면접 시험을 시행하고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최종적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내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 인원내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② 균형인사지침(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 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그 경우에도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을 받은 해당 성의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험에 따라 목표인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②-2 다만,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성의 응시자가 면접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의 사람을 차례로 ‘제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성의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이때,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험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 중 어느 한 성이 채용 목표비율(30%, 검찰사무직렬은 2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그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남성이 동 제도를 적용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성만을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인원(선발예정 인원×30%-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여성합격자 수)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다른 한 성별에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응시자가 선택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발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추가합격의 행운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라 할 것이다.

(5)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가 바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이다.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적용되며, 지역별 구분모집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지방학교는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다음의 학교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1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 연세대 원주캠퍼스(지방학교에 해당), 성균관대 수원캠퍼스(지방학교에 비해당)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대,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특별법으로 설치된 경찰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제3사관학교 및 외국학교(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포함)는 지방대학에서 제외된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학력별로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는 해당

- 「고등교육법」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예정자: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

②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

③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 중인 자는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입학자는 제외

④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

⑤ 기타

- 최종학력이 초·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자
-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자
- 아래에 열거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 또는 열거된 학력의 보유자는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학력이 지방학교인 자

※ 대학원, 사이버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독학 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

지방인재로 인정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차시험 응시 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20%(7급 30%)를 곱한 인원수이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10%(7급 5%)를 곱한 인원수로 제한한다(추가합격상한).

※ 인원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5급 공채시험 예시) 당초 합격예정인원이 100명인 경우, 추가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가 15명(15%)인 경우에도 추가합격자는 10명(10%)을 넘을 수 없음.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방법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요건	지방인재가 시험실시 단계별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한 경우
	제1차 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제2차 시험	과락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	7급 공채	과락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지방인재 합격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요건	제2차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킨 경우
적용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① 시험령 제23조제5항, 제23조의3 제5항, 제2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하여 면접 시험을 시행하고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최종적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함. 다만,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 인원내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② 균형인사지침(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 ②-1 상기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수”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하고, 이 경우에도 지방인재가 여전히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통”등급을 받은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 처리 ※ 이때, 지방인재 추가 합격 상한인원(5급·외교관후보자 당초 합격인원 × 10%, 7급:당초 합격인원 × 5%)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점자 전원을 추가 합격시킴에 따라 추가합격상한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②-2 제2차시험에서 추가합격한 지방인재가 면접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방인재가 아닌 자를 차례로 ‘제2차시험에서 추가 합격한 지방인재 응시자 중 면접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이하 “우수 인원수”라고 함)만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 전원을 추가합격시킴에 따라 우수 인원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제도는 아니다.

수험생이 자주 하는 질문 FAQ

Q.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요?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필기시험 합격예정 인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기존 합격선에 든 비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물론 면접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면접시험에서도 일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인원이 늘어나므로 비 지방인재 응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Q. 각 대학별 분교는 지방학교로 인정되나요?

A.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에 한해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학교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 인정되어 지방학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므로 지방학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등이다.

Q.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접위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나요?

A.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험생이 지방인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사전에 면접위원에게 알려줄 경우 면접시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응시자의 면접이 종료되고 면접위원이 면접평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인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 조슈아 J. 마린 -

”

5. 가산점 제도

공무원 시험에서 1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다. 이 1점으로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가산점 제도도 반드시 활용하여 합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은 90% 이상이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합격자 중 약 90% 내외가 가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산점 없이 합격한 사람은 10% 내외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가산특전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대상자에 속하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자신이 노력하는 여하에 달린 것이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미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두는 것이 좋겠다.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1개의 자격증만 인정)	

※ 2017년 국가직 시험부터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은 폐지됨.

※ 국가직 7·9급 공채 기준

(1) 2017년부터 국가직 6급 이하 공채시험에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특정 직렬에서만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이다. 2017년부터 국가직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이 폐지된다. 스펙을 초월한 열린 채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외하는 것이다. 2017년 이전에는 국가직 7·9급 공채 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처리기능사·기사 등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할 경우에는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0.5%~1%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지방직·서울시 등의 다른 시험에서는 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한다.

+ 자세히 보기 공통적용 가산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 2017년부터 폐지(국가직)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7·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①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한다. 단, 공통적용 자격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된다. 그러나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한다. 직군별로 적용 자격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행정직군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가산)	

7급 통계직렬에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와 행정직(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 2급 소지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기술직군

기술직렬의 응시자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기술직군 분야의 가산대상 자격증과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기존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통하여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변경될 수 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제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이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인 경우이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3) 의사상자 가산점 제도 시행

의사상자 가점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이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6. 시험 절차

시험 절차는 각 세부 시험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시험 공고

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계획은 시험일 해당 연도 초에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해당 연도의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응시자격,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정 등이 상세히 공고되므로 수험생들은 이것을 꼭 살펴보고 수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원서접수일 및 시험일 등을 잘 체크해서 착오나 혼동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시험 절차 및 시험 개요

크게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7·9급 공채의 경우 필기 시험은 선택형으로 한 번만 보게 되는데, 7급의 경우에는 필수 7과목(다만 외무영사직은 필수 6과목 선택 1과목으로 이루어짐)을 보며, 9급의 경우에는 필수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포함하여 총 5과목(선거행정, 방재안전 등 예외 있음)을 본다.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서울시의 경우 영어면접이 폐지되고 7급과 9급에 각각 집단토론과 5분 스피치가 도입되어 면접 비중이 높아졌다.

구분		면접 시간	면접 방법
국가직	7급	90분 내외(과제검토 및 작성시간 제외)	집단토의+개인발표+개별면접
	9급	40분 내외(과제검토 및 작성시간 제외)	5분 발표+개별면접
서울시	7급	105분 내외	토론면접+주제발표+개별면접
	9급	40분 내외	5분 스피치+개별면접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다.

평정방법은 3명의 면접위원들이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게 된다.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우수로,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분류한다. 그 외의 경우는 보통으로 평정한다.

면접시험 결과와 필기시험 성적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우수	제2차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범위 내에서 제2차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제2차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합격 ※ '보통'이상 등급을 받은 자 중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탈락한 수험생은 최종합격자 발표 일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자 발생 시 추가 합격 가능
미흡	제2차시험(7·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탈락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공무원 면접시험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정부가 2015년부터 5·7·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면접시험에서 NCS를 기반으로 공직사회 가치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하는 방식을 2015년부터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5급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7·9급은 실무능력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NCS에 기반을 둔 공무원 직무모델은 개발되지 않았으나 인사혁신처는 2015년 면접시험에서 NCS를 시범 도입한 후 추후에 공무원의 정식 직무모델을 등록할 방침이다.

7. 개별 시험 안내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국가직·지방직·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지방직·서울시 시험일 동일).

9급 국가직 공채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인 반면, 지방직 시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주관하고 선발하는 시험이다. 9급 국가직 공채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이 있어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수험생들은 해당 지방직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채용시험을 제외한 각 지방직의 필기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위탁받아 출제하기 때문에 국가직 필기시험과 문제유형이 매우 유사하다. 국가직 9급 채용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4지 1택형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20문항으로 총 100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지방직 채용시험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kr)에서 공고하며,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원서접수를 이곳에서 받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원서접수(gosi.seoul.go.kr)를 통해 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여기에 서 시험공고도 확인해야 한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요건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둘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서,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과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게 되면 당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 출생, 주소 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단, 거주지 제한 요건이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응시 전에 해당 지자체별 시험공고를 반드시 미리 확인한다.

2019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 비교(9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시험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거주지 제한	없음(지역별 구분모집 예외).	있음.
필기시험 일시 (2019 기준)	4월 6일	6월 15일
필기시험 출제기관	인사혁신처	
필기시험 개요	5과목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총 100문항) 문항당 풀이 시간 1분 내	
필기시험 문제형태	4지 1택형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공통(지역별 구분모집제 제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합격 후 근무처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 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필기시험은 다른 지방직과는 달리 인사혁신처에 문제 출제를 위탁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제한 문제로 시험이 치러진다. 문제유형이나 난이도 등이 국가직이나 타 지방직 시험과 상이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국가직 시험은 비교적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출제함에 비해 서울시 시험은 보다 지엽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 입장에서 서울시 시험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서울시 시험은 다른 지방직 시험과 다르게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요건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듯 시험별로 출제경향 및 시험일정, 응시 조건 등이 상이하니,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응시연령 하한선에는 제한이 있다(18세 이상, 교정·보호직은 20세 이상).

또한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2)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국가직/지방직/서울시

흔히 주사보, 기사보라 불리는 7급 공무원의 중앙 부처에서는 초급 직원이지만 하급 기관에서는 비중이 커서 지방기관인 시청이나 구청 각과의 핵심이 되는 선임 직원들이다. 7급 공무원이 8·9급 직원들을 통솔한다. 7급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수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여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시험이다. 9급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시험·지방직 시험·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으로 나뉘며, 시험 과목은 9급 과목보다 2과목 더 많은 총 7과목(국가직 7급 시험의 경우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으로 구성된다.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된다.

2019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 서울시 시험 비교(7급 기준)

구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주관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험공고 시기	매년 초(1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공고	6월 중
거주지 제한	없음.	있음.	없음.
필기시험 일시 (2019 기준)	8월 17일	10월 12일	10월 12일
필기시험 출제기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서울시
필기시험 개요	7과목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		
필기시험 문제형태	4지 1택형	4지 1택형	4지 1택형
필기시험 합격선	전국공통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함.	서울시 단독
면접시험 시행	인사혁신처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합격 후 근무처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 하급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	서울시 자치단체

※ 2019 상반기 서울시 추가채용 필기시험은 2월 23일 시행 예정

① 시험 방법

제1차·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국가직 7급의 경우 행정·기술직군은 필수 7과목, 외무영사직은 필수 6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미만 득점)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 3명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미흡’으로 평정한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단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실시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응시자격

학력 및 경력 제한은 없다. 다만 응시연령 하한선에는 제한이 있다(20세 이상). 단 전산직 응시자는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7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9급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7급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9급 공채 응시에도 인정

7급 지방직(서울시 제외)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경우 거주지 제한요건이 있다. 내용은 9급에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다.

● 거주지 제한요건

- ①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②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서, 기간 중 주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가 모두 다르고 또한 시험일정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시험 시행기관이 발표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은 매년 초에 인사혁신처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한다. 지방직 시험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원서 접수 일정, 방법, 응시자격, 모집인원 및 직렬, 시험 과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④ 가산점

가산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서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렬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변호사, 변리사	5%
행정직(교육행정)	변호사	
행정직(회계)	공인회계사	
행정직(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직업상담직(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세무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감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변호사, 법무사	
검찰직·마약수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통계직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단 7급은 3%가산)	

7급 통계직렬에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 소지자와 행정직(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서 직업상담사 2급 소지자는 각 과목 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 기술직군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 사 포함]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 산물품질관리사 포함]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서 자격증이 신설되거나 기존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통하여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변경될 수 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제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적용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이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인 경우이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

■ 의사상자 가산 제도

의사상자 가점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4조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이다. 가산방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확인

5 시험 과목

○ 국가직 7급 필기시험 과목(2018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 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행정직(일반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인사조직)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행정직(선거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행정직(고용노동)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한국사, 헌법,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직(교육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행정직(회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세무직(세무)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관세직(관세)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통계직(통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감사직(감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교정직(교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보호직(보호)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검찰직(검찰)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철도경찰직(철도경찰)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공업직(일반기계)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학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공업직(전기)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기기
공업직(화공)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임업직(산림자원)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시설직(일반토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대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전산직(전산개발)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방송통신직(방송기술)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자기기학, 전자회로
외무영사직(외무영사)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2018년에 공개경쟁채용을 진행하지 않음.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과목(2018년 기준)

직렬(직류)	시험 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행정직(일반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직(교육행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행정직(선거행정)	필수(4):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선택(1): 행정법총론, 형법
행정직(고용노동)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직업상담직(직업상담)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노동법개론, 직업상담·심리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세무직(세무)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관세직(관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통계직(통계)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정직(교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보호직(보호)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검찰직(검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마약수사직(마약수사)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철도경찰직(철도경찰)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공업직(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임업직(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시설직(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재안전직(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전산직(전산개발)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직(정보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방송통신직(전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2019년부터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모든 직렬에서 공통과목이다. 이는 9급 시험과 동일하다. 단지 국어의 경우 한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9급 국어과목과 다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9급 국어와 동일하고 다만 한문 관련 내용이 조금 추가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면 9급과 7급은 3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이 동일하고 선택과목을 행정법과 행정학으로 선택한 9급 수험생이라면 7급 과목과는 일반행정 직렬에서 5과목이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7급 수험생 중에서 9급에 응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⑥ 경쟁률 및 합격선

○ 2018년도 국가직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선(일반 모집)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전 모집단위 합계	770	36,662	25,973	—	1,016
일반 모집 합계	725	36,186	25,650	—	967
행정(일반행정)	159	14,106	9,859	80.00 (지방)79.16	236
행정(우정사업본부)	20	753	519	76.66	24
행정(인사조직)	4	1,457	965	80.00	5
행정(고용노동)	117	876	610	69.66 (지방)68.33	146
행정(교육행정)	3	713	439	81.66	4
행정(회계)	6	179	113	75.00	8
행정(선거행정)	19	1,599	1,068	82.50	25
세무(세무)	68	3,587	2,744	78.33 (지방)77.50	93
관세(관세)	17	886	682	83.33	23
통계(통계)	7	268	211	83.00	9
감사(감사)	13	947	724	84.16 (양성)83.33	15
교정(교정)	30	1,047	739	77.50 (지방)76.66	36
보호(보호)	5	95	62	76.66	6
검찰(검찰)	10	1,355	863	83.33	14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20	902	656	77.50	25
공업(일반기계)	32	672	462	75.00 (지방)74.16 (양성)72.50	42
공업(전기)	31	666	411	75.00 (지방)74.16 (양성)72.50	43
공업(화공)	24	586	426	72.50	30
농업(일반농업)	7	479	316	84.16	9
임업(산림자원)	6	248	171	79.16	7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시설(일반토목)	32	484	340	70.83 (양성)68.33	43
시설(건축)	16	495	306	76.66 (지방)75.83	20
방재안전(방재안전)	5	253	140	75.83	6
전산(전산개발)	29	929	659	74.16 (지방)73.33	42
방송통신(전송기술)	8	232	153	75.00	12
외무영사(외무영사)	37	2,372	2,012	85.83 (양성)85.00	44

○ 2018년도 국가직 9급 공채(일반 모집) 필기시험 합격선(일반 모집)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전 모집단위 합계	4,953	202,978	155,298	—	6,874
일반 모집 합계	4,564	196,792	150,638	—	6,406
행정(일반행정 전국)	232	37,543	27,382	369.99	321
행정(일반행정 지역)	119	13,492	9,973	—	165
서울·인천·경기	32	4,006	2,768	370.40	44
강원	12	741	559	344.27	17
대전·세종·충남·충북	8	1,703	1,290	365.40	11
광주·전남	14	1,271	922	357.98	19
전북	13	988	797	352.46	18
대구·경북	16	1,745	1,281	362.77	22
부산	4	934	707	365.98	6
울산·경남	13	1,558	1,200	365.22	18
제주	7	546	449	355.31	10
행정(우정사업본부 지역)	680	17,968	14,757	—	1,012
서울	116	2,886	2,323	351.62	172
인천·경기	103	2,591	2,025	341.61	153
강원	67	1,374	1,142	329.42	100
대전·세종·충남·충북	72	2,428	2,001	343.10	107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광주·전남	90	2,178	1,810	337.38	134
전북	29	970	818	341.80	43
대구·경북	98	2,688	2,224	339.83	146
부산·울산	37	1,037	844	342.94	55
경남	56	1,614	1,404	343.56 (양성)340.89	84
제주	12	202	166	327.33 (양성)316.97	18
행정(병무청)	100	2,737	2,193	350.99	139
행정(고용노동)	520	18,815	15,013	349.82	776
행정(교육행정)	45	9,310	6,909	368.19	62
행정(선거행정)	90	1,759	1,255	340.29	125
직업상담(직업상담)	54	2,165	1,432	319.63 (양성)316.71	75
세무(세무)	878	23,161	18,688	343.59	1,133
관세(관세)	155	5,201	4,195	350.53	200
통계(통계)	55	998	768	351.09	76
교정(교정: 남)	507	10,839	8,339	321.00	755
교정(교정: 여)	50	1,560	1,214	332.78	74
보호(보호: 남)	97	2,181	1,666	326.74	135
보호(보호: 여)	21	2,705	2,129	352.74	29
검찰(검찰)	287	12,032	8,848	347.04	369
마약수사(마약수사)	24	1,327	877	352.20	31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197	8,810	7,072	359.31 (양성)355.47	272
철도경찰(철도경찰)	50	1,707	1,141	333.94	74
공업(일반기계)	35	2,388	1,724	70.00 (양성)69.00	56
공업(전기)	23	2,186	1,460	72.00 (양성)70.00	35
공업(항공)	18	1,220	917	74.00	20
농업(일반농업)	63	3,279	2,570	78.00	105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임업(산림자원)	76	1,944	1,571	71.00	109
시설(일반토목)	43	3,708	2,891	65.00 (양성)64.00	65
시설(건축)	18	2,359	1,750	75.00	23
방재안전(방재안전)	9	708	490	67.00	15
전산(전산개발)	50	3,138	2,354	73.00	65
전산(정보보호)	5	360	203	69.00 (양성)67.00	6
방송통신(전송기술)	63	1,192	857	65.00	84

직렬별로 합격선에 차이가 있고 출원인원 및 응시인원도 상이하다. 물론 경쟁률이나 출원인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직렬을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의 합격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보고 목표 점수를 설정할 때 참고하여 합격선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크게 1년에 평균 두 차례 시행하는 순경공채 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경행경채, 전의경경채, 101 경비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2018년 3차까지 모집인원이 7,294명에 이를 만큼 대규모의 시험에 해당한다. 순경공채시험은 업무의 특성상 체력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에도 상한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체력관리는 물론 응시 상한 연령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년 초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gosi.police.go.kr)을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공고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① 경찰간부후보생

□ 응시자격

- 21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 병역면제자 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단, 제대군인의 응시 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세 연장,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세 연장
- 학력에는 제한이 없다.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일 것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체조건

구분	합격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함. 색약 보정렌즈는 사용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전형절차

필기시험	7과목(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 영어의 경우 자격증으로 대체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
체력검사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적격성 등 검정

□ 시험 방법

- 1교시: 객관식 필수(한국사, 형법)
- 2교시: 객관식 필수
- 3교시: 주관식 필수 1과목
- 4교시: 주관식 선택 1과목

□ 필기시험 과목

시험별	분야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1차시험	객관식	필수	한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2차시험	주관식	필수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 총칙, 형사정책 중 1 과목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1 과목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

※ 영어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1조 별표5(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 수)에 의거 기준 점수를 충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하며 상세 기준 점수는 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가산점 대상 자격증에 정보보안(산업)기사 추가(4점)

□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0%, 자격증 가산점 5%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순경공채(일반순경, 101 경비단)

□ 응시자격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군복무(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 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세, 2년 이상인 경우는 3세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한다.

-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응시 가능함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신체조건

구분	일반순경(남, 여), 전의경 경채, 경행경채	101경비단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체력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흉, 목, 구,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신장	-	170cm 이상
체중	-	60kg 이상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함.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함.	
운동 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시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용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시험 절차

- 시험 공고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사이트에 공고된다.
- 원서접수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 시험단계는 필기시험 ⇨ 신체·적성·체력검사 ⇨ 응시자격 등 심사
⇨ 면접검사순으로 치른다.

□ 시험 과목

필수(2)	한국사, 영어
선택(3)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중 택3

각 과목별로 객관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 시험 방법

-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
- 신체검사: 신체조건 등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 체력검사: 5종목(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 면접검사: 적성과 자질, 직무수행능력·발전성 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자격증 가산점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순경경채

순경경채는 경찰행정학과경채와 전의경경채로 나누어진다.

□ 경찰행정학과특채**응시자격**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 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 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 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시험 과목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전의경경채**응시자격**

전의경 경력채용 응시자는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인 자이다.

시험 과목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4)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업무를 주로 하는 소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하는 지역 공무원이다. 방호 업무, 예방 업무, 지도 업무, 야간 소방, 구급 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이다.

최근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주5일 근무, 격무 부서 3부제 도입 등의 대책이 추진되면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간 모집인원이 크고, 추가채용까지 늘어나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특성상 체력검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응시 연령 상한선이 있다. 운전면허 1종 소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후보생과 소방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❶ 소방간부후보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여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학력(경력) 및 거주지 제한없음.

－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필기시험 과목

구분	과목	
인문사회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행정법
계열	선택(2과목)	행정학,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경제학, 소방학개론 중 택 2
자연계열	필수(3과목)	헌법, 한국사, 자연과학개론
	선택(2과목)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소방학개론 중 택 2

※ 영어는 토플, 토익, 텡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완화

시험 종류	토플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CBT	PBT	IBT		2018.5.11. 이전 실시	2018.5.11. 이후 실시		
응시에 필요한	490점	165점	58점	625점	520점	280점	레벨2의	520점
기준 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50점 이상	이상

- 각 과목별 25문항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5지 택일형이다. 각 과목별 만점은 100점이다.
- 합격기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체력시험

- 시험종목: 배근력 / 악력 /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 멀리 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평가방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 별표7 규정에 의함
- 합격기준: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2016년부터 도핑테스트 실시

□ 신체검사

- 지정의료 기관에서 단체로 실시
-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별표5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 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면접시험

- 평정요소

단계	평가요소
1단계(집단면접)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단계(개별면접)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합격기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함.

2 소방사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나누어진다. 경력경쟁채용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나 경력, 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응시자격

구분	내용
응시연령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40세 이하 /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응시자격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가산특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매 과목에서 과락이 아닌 사람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취득점수 + 각 시험별·단계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한다.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고 분야별로는 하나만(총 2개) 가산한다. 단, 자격증과 사무관리 가점을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다.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공개경쟁채용은 자격증 가산점 없음).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기준)

구분	5%	3%	1%
자격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1급~4급 화재사·기관사·운항사	5급 또는 6급 화재사·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관리			

□ 시험 방법 및 합격기준

단계	내용	합격기준
필기시험	일반공채: 5과목(필수3, 선택2) 경력경채: 3과목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체력시험	6종목(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적합한 자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 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면접시험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로 진행되며 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10점),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1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10점)을 평가한다. 2단계 개별면접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20점),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10점)을 평가한다.

□ 필기 시험 과목

구분	시험 과목
공개경쟁채용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수학, 과학)
경력경쟁채용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자격증 소지)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그동안 비공개였던 소방 시험문제가 하반기 추가채용부터 공개됐다. 이어 2019년도 소방간부시험도 문제가 공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소방학교 119GOSI(www.119gosi.kr)나 각 지역별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한다.

(5) 입법공무원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 후에는 국회 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일하게 된다. 직급별로 시험을 구분해 보면 입법고시(5급), 8급 및 9급 공채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8급 및 9급 공채시험 위주로 설명한다.

① 8급 공채시험

8급 공채시험은 통상 5~7월에 시행되고 행정직을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인원은 15명 내외이다(상황에 따라 변동). 8급 행정직 합격자의 경우 기본교육(신임실무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각 부에 배치되게 된다.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자격은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험 과목
필기시험	1교시(85분): 국어·헌법·경제학 2교시(85분): 영어·행정법·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② 9급 공채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원 충원시기에 따라 직류별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속기직·경위직·방호직·사서직·전산직을 선발한다. 수험생들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시험의 공고문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응시자격은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직렬에서는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한다.

사서직	준사서자격증 이상 소지자
속기직	한글속기 3급 이상 소지자
전산직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경위직, 방호직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속기	경위	사서
필기시험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시험시간 100분)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헌법	4. 헌법	4. 헌법
	5. 행정학개론	5. 경호학개론	5. 정보학개론
	전산	토목	건축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컴퓨터일반	4. 응용역학개론	4. 건축계획
	5. 정보보호론	5. 토목설계	5. 건축구조
	기계	전기	통신기술
	1. 국어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3. 한국사
	4. 기계일반	4. 전기이론	4. 통신이론
	5. 기계설계	5. 전기기기	5. 전자공학개론
	촬영	방송기술	
	1. 국어	1. 국어	
	2. 영어	2. 영어	
	3. 한국사	3. 한국사	
	4. 방송학	4. 전자공학개론	
	5. 미디어론	5. 방송통신공학	

(6) 사법공무원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은 9급 공채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가 있다. 2017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 법원직 면접시험에서 인성검사를 도입했다.

① 9급 공채시험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으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응시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시험 방법

구분	방법	과목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제3차 시험	인성검사/면접시험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scourt.go.kr)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우정직 공무원

우정직(계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우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우정 9급 공무원의 담당 업무는 일선우체국에서의 우체국 금융 업무·현업창구(회계) 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 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이다. 우정직(계리) 시험은 통상 2년에 한 번씩 실시(이례적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실시예정)되며, 우정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응시요건	•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 응시연령: 18세 이상 • 학력·경력: 제한 없음.
시험 방법	1차 필기시험(3과목 각 20문항 총 60문항) ⇔ 2차 면접시험
시험 과목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시험시행기관	지방우정청

8. 최근 채용시험 제도 개선사항

(1) 9급 국가직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시행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 과목 개편

2013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일부 직렬 제외) 필기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과학, 사회, 수학, 행정학개론이 추가되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험생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2012년까지는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교 졸업자가 공직에 입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행정직군은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일반행정직 기준: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택2)을 선택하여 총 5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공업직렬, 방재안전직렬 등 일부 직렬은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종전과 같이 필수 5과목을 그대로 응시하게 된다.

○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추가됨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아래의 공식에 따라 조정점수로 변환·산출하게 되었는데 이를 조정점수제라 한다.

$$\text{조정점수} = \frac{\{\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text{표준편차 산출 공식} =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text{의 총 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 조정점수 산출 및 합격자 결정방식

- 1 선택과목의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변환한다.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계산식에 의해 조정점수(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은 점수로 산출한 조정점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 2 과목별 과락여부를 판단한다.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원점수가 35점, 조정점수가 41점인 경우 이 수험생은 과락이 아니다. 반대로 원점수가 40점, 조정점수가 37점인 경우에도 과락이 아니다.

③ 가산점 부여 및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과락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해 선택과목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후 계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한다. 즉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2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④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성적을 공개한다. 필수 3과목의 원점수와 선택 2과목의 조정점수를 합한 총 득점을 기준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필수과목의 원점수와 선택과목의 원점수 및 조정점수를 공개하지만,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공개하지 않는다.

○ 조정점수 고득점 비법!

위의 조정점수 산출 공식을 참고하면, 조정점수 고득점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내가 받은 점수가 높아야 한다. **Tip** 자신이 고득점을 낼 수 있는 자신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자!
- 2)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이 낮아야 한다. **Tip** 경쟁자에 비해 자신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과목을 찾자!
- 3)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Tip** 표준편차는 응시 인원이 늘어날수록 작아지게 되므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Case ① 내가 받은 점수가 높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60	10	$\{(80-60)/10\} \times 10 + 50$	70
B	90	60	10	$\{(90-60)/10\} \times 10 + 50$	80

Case ② 내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이 낮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60	10	$\{(80-60)/10\} \times 10 + 50$	70
B	80	50	10	$\{(80-50)/10\} \times 10 + 50$	80

Case ③ 내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작아야 한다.

응시자	점수	과목 평균	표준편차	조정점수 공식	조정점수
A	80	50	20	$\{(80-50)/20\} \times 10 + 50$	65
B	80	50	5	$\{(80-50)/5\} \times 10 + 50$	111

+ 자세히 보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FAQ

- Q. 조정점수 산출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별로 분리하는지, 아니면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 A.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Q. 과락기준(만점의 40%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A.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이상일 경우 (40점 이상)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Q. 가산점 부여 시기 및 절차는?
- A. 과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에 한해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합니다.
- Q.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으로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 A.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 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공채시험(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추가 합격자 결정제도 시행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한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임용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

제2차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과락자를 제외하고 제2차시험 성적 순에 의해 차례로 당초 합격인원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과락자를 제외하고 필기시험(7·9급 공채만 해당) 성적순에 의해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 후 별도의 제3차(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최종합격자 선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 사정이 발생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기존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7·9급 공채의 경우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정리해보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1	요건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시험	5급 공채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실시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유형2	요건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시험	6급이하 공채시험
	실시방법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시험 실시
유형3	요건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시험	5급 공채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6급이하 공채시험
	실시방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 결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를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

(3)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

종전에는 오로지 면접시험 결과(면접 평가 하위자에 대해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면접시험 평가(우수, 보통, 미흡 중 하나의 등급 부여)결과와 더불어 필기시험 성적(5급 공채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 순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6급이하 공채는 제25조)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순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우수	부분반영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단, 우수 등급자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필기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보통	반영	합격 또는 예비합격 (우수 등급자를 포함하여 선발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필기성적순에 따라 합격자 결정)
미흡	미반영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채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면접시험(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면접시험 일에 안내하는 기간 중에 추가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예정 인원 초과하는 경우

+ 자세히 보기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대폭 강화

● 시행 목적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있어서 공직가치관과 분야별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기 위해 면접방식을 개편하기로 2015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였다.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 면접시험 응시대상 증가(2015년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부터 적용)

구분	내용
7·9급 공채	선발예정 인원의 140% 수준에서 결정

※ 단, 모집단위별 면접시험 응시인원은 직렬별 특성이나 해당 모집의 필기성적 분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면접시험 운영방식 전면 개선

① 1인당 면접시간 확대

구분	내용
7급 공채	집단토의 면접 도입
9급 공채	5분 스피치 평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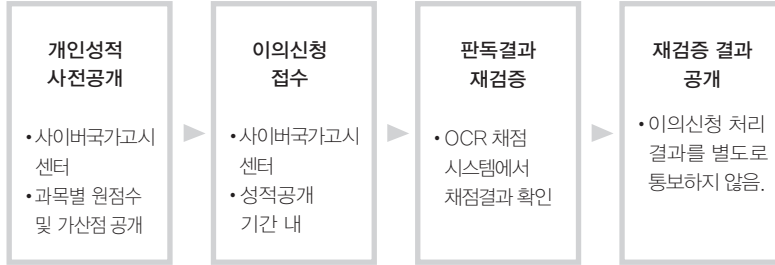
② 관련 분야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활용

구분	내용
시행 목적	효과적인 면접시험 진행과 공정한 평가 목적
면접위원 후보자 풀	전·현직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인사컨설팅 전문가 등
면접위원 위촉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면접위원 교육 강좌를 이수한 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 시행

채용시험 채점관리의 정확도·신뢰도 향상을 위해 채점단계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를 2014년 9급 공채시험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로 인해 답안지 책형 및 답안 표기와 관련된 수험생 불안과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추진절차



※ 성적 이의제기 과목에 대한 온라인 답안지 열람신청 가능

❶ 개인성적 및 가산점 등 사전공개

- 시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필기시험일 이후 5~6주차)
- 과목: 과목별 원점수(가산점 미포함), 가산점(기관 조회 결과) 등

❷ 수험생 이의신청 접수

- 대상: 가채점 결과와 공지된 성적이 달라 채점결과 확인이 필요한 수험생
- 신청: 성적 공개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채점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성적이 확정된다.

❸ 재검증 결과공개

- 이의신청을 한 수험생의 채점결과 확인·검증
-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❹ 본인 답안지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 본인 성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직접 열람 신청 가능

(5)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

국가직 7·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신청하거나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표기하는 절차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국가직의 경우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가산특전 신청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5% 또는 10%)을 체크해야 한다. 자격증 가산점의 경우에는 자격증명 및 가산비율을 체크해야 한다.

(6) 응시자 준수사항 변경

2014년부터 OCR(이미지스캐너)기기로 답안지를 판독하므로 연필, 샤프, 플러스펜, 적색펜 등 펜의 종류와 색깔에 상관없이 예비 마킹을 할 경우 중복 마킹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평소 예비 마킹을 하던 습관이 있는 수험생들은 예비 마킹 없이도 실수하지 않는 연습을 평소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한 번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완전히 지워야 하며, 답안지 수거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불허하였으나 2014년부터 국가직 시험(단, 사회복지직 제외)에서는 답안 표기를 수정할 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정 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 후 손으로 꼭 눌러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본인 확인용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추가된 것도 변경된 응시자 준수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만 인정된다.

(7) 인사조직직류 신설, 직렬명칭 및 시험 과목 변경

2016년부터 5·7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행정직렬 안에 인사행정을 전담하는 인사조직직류가 신설되었다.

종전에 철도공안직으로 불리던 직렬은 철도경찰직으로, 검찰사무직으로 불리던 직렬은 검찰직으로 직렬명칭이 변경되었다.

전산직(전산개발) 시험 과목도 변경되었는데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추가되었고, 7·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프로그래밍언어론(폐지)을 정보보호론으로 대체하였다.

9급 선거행정직 시험 과목은 2016년부터 필수 4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형법 중 택 1)으로 변경되었다.

(8) 합격자 명단 발표방식 변경

2014년부터는 일반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모집단위에서 합격자 명단 발표시 응시번호만을 공고한다. 종전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요청에 따라 응시번호만을 공개해 왔으나, 일반모집에서는 응시번호와 함께 성명도 공개했었다. 하지만 일반모집 응시자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채용정보,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점과 일반 모집 합격자 성명공개로 인해 간접적으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4년부터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9)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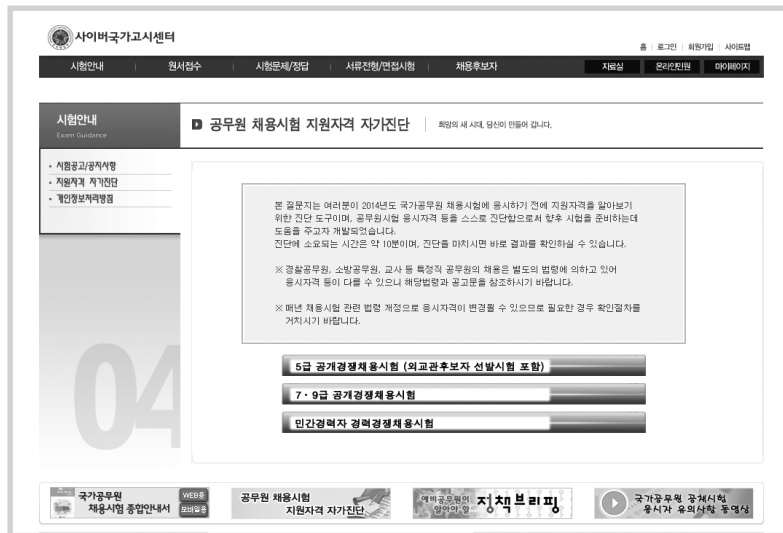
2014년 2월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이 시험계획 공고문의 지원자격을 충족했는지 스스로 진단·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공무원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5급 공채, 7·9급 공채, 민간경력채용 등 3개 분야에서 체크리스트 방식으

로 구성되며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배너 중 지원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자가진단 주요항목

- 공통: 연령, 응시결격사유, 국적, 신체검사, 임용유예, 시험 과락
- 5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지역구분모집 등
- 7·9급 공채: 장애인·저소득층·지역구분모집, 임용유예 등
- 민간경력 채용: 관리자·일반 경력, 학위, 자격증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화면



(10) 정보보호직 신설

2016년부터 전산직렬에 정보보호직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산직은 기존 3개 직류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보호직의 7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7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정보보호 기술, 네

트위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공학)으로,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9급의 경우는 필수 5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을 응시해야 한다.

(11)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시 응시요건·가산점 증빙자료 제출 면제

2017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시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증빙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 관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변경되었다.

(12) 고용노동직류 및 직업상담직렬 공채 선발

고용노동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동존중 사회 구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공채부터 고용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됨으로써, 2018년 7급 공채시험에서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를, 9급에서는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과 직업상담직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직류(행정직렬), 직업상담직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기시험 과목에 노동법도 추가된다.

(13)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평균 2개월 단축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이 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기존에 비해 최대 95일 단축된다. 이는 선발 소요 기간 장기화에 따른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함이다. 따라서 4월 7일에 필기시험이 시행되는 9급 공채도 2월 20~23일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거쳐 6월 15일에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됨에 따라 선발 일정이 예년보다 66일이나 짧아졌다.

8월 18일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7급 공채도 7월 14~17일간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거쳐 9월 17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14) 2021년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개편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필기과목이 개편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차(PSAT,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검정시험), 2차 필기시험(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PSAT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여러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과거 암기지식 위주 평가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로 전환됨으로써 직무수행역량 검정을 강화하고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9년 하반기에 그 문제유형이 공개되고, 2020년에 2회의 모의평가를 거쳐 2021년 시험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공무원 시험 똑똑하게 준비하자!

1. 학원 200% 활용하기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3. 과목별 공부 방법
4. 공부계획 세우기
5. 합격을 부르는 노트정리법

1. 학원 200% 활용하기

(1) 학원 강의 수강, 꼭 필요할까?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혼자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수험 생활의 메카 노량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부 방법에는 정해진 길이 없고, 왕도도 없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학원 강의가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과 학원 강의의 득과 실,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제대로 이용하기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 중 자신을 좀 더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체크해 보자.

나는 학창 시절 성적을 향상시켜 본 경험이 있다.

나는 한 번 책상 앞에 앉아 2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한 번 책을 읽으면 끝까지 잘 읽는 편이다.

나는 스스로 시간 관리 하는 방법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공부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잘 파악되는 편이다.

나는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편이다.

나는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수험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서울, 경기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 완강하고 정해진 학습량을 충실히 이행하는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5	4	3	2	1

* 선택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40점 이상이면 독학을 하여도 괜찮은 수험생 타입이다. 자신의 점수가 30점 이상 40점 미만이라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해도 적합한 수험생 타입이다. 만약 자신의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학원 실강을 듣는 것이 적합한 타입이다.

학원 강의를 필요한 타입의 수험생 유형

공무원 시험에 처음 입문한 수험생이거나 혼자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학원 강의를 추천한다. 공부 계획을 잘 세우지만 막상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의지박약형 수험생도 학원 강의를 적합하다. 학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회독 수를 반복할수록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과 아닌 내용을 추려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는 공부 범위를 한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수험생활에 있어서 시행 착오를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학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경쟁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좀 더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느낄 수 있고 자신도 모르게 더 의지를 다지게 되는 효과도 있다.

(2) 학원 강의의 득과 실

종합반? 단과반? 그것이 문제로다

시중에 출간된 수험생활 관련 교재들을 보면 종합반 강의를 꼭 필요 한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책들이 많다.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수험생들만 보아도 “종합반 말고 단과반을 들으라고 하던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종합반이 수험생활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의 강의와 공부방식인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 2개월 안에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종합반이다. 2개월 동안 5과목에 대한 1회독 완성과 동시에 출결 관리, 주간·월간테스트를 통한 성적 관리, 1:1 개별 심층 상담 등을 통해 수험생활과 학습패턴을 조절·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합격할 때까지의 수험생활을 단축시켜주고 무늬만 공시생인 채로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더불어 2

개월간의 수업을 통해 앞으로의 시험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간혹 종합반을 건너뛰고 단과반부터 수강한 수험생이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5과목을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라는 것이다. 한 과목에 집중하는 공부는 종합반 이후 단계인 심화 단과반 과정에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니 초시생이라면 종합반 수업을 통해 합격의 틀을 다지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만약 듣고 싶은 과목, 듣고 싶은 선생님을 잘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또는 수험생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험생이라면) 선택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과목만을 단과반으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학원 실강의 장점과 단점

학원 실강과 인터넷 강의(동영상 강의)는 강의의 질(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은 실강을 녹화해서 인터넷 강의 형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학원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실강을 듣는 경우 자신이 수업에 몰입하는 강도, 피드백, 자신의 현 위치 파악 등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의 몰입도 측면에서는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경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긴장감·집중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피드백에서도 학원 실강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표시해두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도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바로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신의 현 위치 파악 측면에서도 쪽지시험·일간 테스트·주간 테스트 등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 성취감을 올릴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나태해질 수 있는 수험생활에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유지시켜 준다.

학원 실강의 단점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강의료일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공무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원 강의의 높은 단가가 가장 부담스러울 것이다. 또한 강의 집중이 잘되는 앞자리를 선점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야 하는 경우도 많고 만약 자리를 맡지 못한 경우에는 잘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는 자리에서 수강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더구나 요즘은 강의실 면적도 크고, 수험생들이 꼭 들어찬 경우 옆자리 사람의 소음과 불필요한 냄새 등으로 인해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다.

(3) 학원 선택 방법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 실강을 듣기로 결정한 수험생에게 학원 선택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저기서 우리 학원이 1등 학원, 최다 합격생 배출 학원이라고 선전하는 가운데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는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누가 추천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등 타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어떤 학원이 가장 좋은지 꼼꼼히 비교·분석하고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학원 상담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선생님 타입, 자습 공간 등 학습 환경, 수험 생활 관리 시스템 등을 차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학원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종합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요약강의반, 마지막 마무리반 등을 순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학원을 선택하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며,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4) 학원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학원을 선택하되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학원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행하는 성실한 수험생이라면 합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모두 이런 합격에 대한 염원을 안고 학원으로 오로도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학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되 전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험생활만큼 고독한 과정은 없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원에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길을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다.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표는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게 잡을수록 좋다. 수험생들 중에는 ‘시험은 내년이니까... 난 내년 시험에 올인할꺼야...’ 하면서 당해 연도에 닦친 시험이 아닌 다음 해 시험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이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당장 목전에 닦친 시험 회차에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가능한 목표 수험 기간은

짧게 설정해야 한다. 1년 정도의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합격을 판가름 낸다는 목표의식으로 도전해야 한다.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공무원 수험에 쏟아내고 그 이후에는 합격을 쟁취해내야 한다.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라. 목표는 최단 기간에 합격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학원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정규 강의를 듣는 시간 외에 자기 혼자 공부하는 자습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한다. 하루 종일 강의만으로 채워지는 수험생활은 ‘공부’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다. 결국 공부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일 5시간 이상은 잡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

학원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꼭 그 날 배운 부분을 복습하고 점검해야 한다. 복습 없이 학원 강의만 듣고 지나간다면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배운 후 망각이 시작되어 한 시간이 지나면 대략 56%를, 하루가 지나면 60%를, 일주일이 지나면 74% 정도를 잊어버린다고 한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반복 학습을 통해 잊혀지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전이시켜야 한다. 이 과정이 바로 복습이다. 따라서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은 수험생이 오늘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그 날 배운 부분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가려내어 외울 것을 암기하는 일이다. 잊지 말자. 복습을 하지 않으려면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 없다는 사실을.

2. 인터넷 강의 제대로 듣기

(1) 인강의 필요성

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인강의 최대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량진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학생이나, 본인의 신체리듬과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자기 주도적인 시간표를 구성하여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인강을 수강하는 것이 현명하다.

노량진 학원 강의는 보통 1시간에 10분 정도씩 쉬면서 3~4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진행하는데, 공부습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 강의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원의 시간표에 맞춰 2과목 이상을 하루에 모두 수강을 하고 나면 그날 실강에서 들은 내용을 바로 복습하기 보다는 피곤을 달래는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뇌는 24시간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전체내용의 60%를 망각한다고 한다. 따라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공부습관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기 보다는, 인강을 통해 본인의 페이스에 맞춘 학습 계획표대로 강의 수강과 복습을 병행하여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② 반복해서 듣기 / 끊어 듣기 / 배속으로 듣기가 가능하다

- 인강은 수강기간 동안 언제든지 반복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강의 수강 중 판서를 메모하느라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돌려서 그 부분을 반복할 수 있다.

- 실강의 경우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뒷부분의 진도를 연속하여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인강은 끊어듣기가 가능하므로 각자의 이해도에 맞게 차근차근 완벽히 이해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 배속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집중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는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수준별, 유형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인강은 수준별 혹은 유형별로 커리큘럼이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 만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인강의 경우 학원에서 진행된 실강을 그대로 촬영하여 판매를 함과 동시에, 촬영된 영상 중 특정 파트만을 분리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강을 통해 [문법 + 어휘 + 독해] 파트 전 영역을 다루는 영어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문법 파트만 복습을 원할 경우, 인강으로 해당 기본이론 강의의 문법 파트 촬영 부분만 분리하여 판매하는 파트별 강의 수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④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인강은 실강에 비해 대략 70~80% 수준에서 수강료가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교통비와 식비 등의 추가 발생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을 오고 가고, 앞자리에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미리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훨씬 적어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부에 투입할 수 있다.

(2) 인강 선택법

①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을 것인가?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따라서 시행착오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강사와 강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은 수험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처음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소위 ‘1타’ 강사의 강의를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의 선택을 받는 강의는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퀄리티를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그 강의를 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출발점’과 ‘취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영어과목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독해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추천하는 강의라 하더라도, 정작 수능 수준의 기초 어휘가 선행학습 되어 있지 않은 학생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초어휘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무원 어휘와 독해 스킬을 학습한들 독해가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적합한 강의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대한 본인의 ‘취향’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한국사 과목을 들자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어떠한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한편, 또 어떠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설명하여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강사의 목소리, 억양, 강의 진행 속도 등에 대해 평가는 가지각색이다. 따라서 인강을 선택할 때에는 강사별 샘플강의 또는 무료 특강을 수강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과목별로 전체 교수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해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선택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 수험생 커

뮤니티나 해당 강사의 홈페이지 내 수강후기 등을 참고 하여 비교대상을 간추려 볼 수 있다.

다만,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수강후기 등은 업체에서 수강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작업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 교수진을 간추리는 정도로만 참고하되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최종 선택은 강의 수강해 본 이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어떤 형태의 강의를 구매할 것인가?

최근에는 단과 또는 종합반 강의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인강이 판매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수강료나 수강기간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자.

■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은 결제일로부터 1년(또는 6개월 선택 가능)간 과목별(9급 기준으로 5과목)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한 연간 회원반 개념의 상품이다. 여러 개의 단과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최대 90% 이상 수강료가 저렴하고 수강기간이 1년으로 넉넉하게 제공이 된다는 점, 또한 패스 구입 시 과목별로 선택 교수의 모든 강의를 제공 되므로 강의 수강에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앞으로 수강하여야 하는 강의의 수가 많거나, 수강기간에 구매 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박문각 프리패스 상품의 경우 과목별 선택 가능한 교수진에 본인이 수강을 원하는 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제공되는 강의의 수가 많은 만큼 본인에게 꼭 필요한 강의만을 선택 수강하는 변별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강기간이 1년이나 된다는 것을 믿고, 강의 수강을 미루다 보면 오히려 수험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계획성 있고 규칙적인 강의 수강이 꼭 필요하다.

■ 교수별 패스 상품

본인이 특정 강사 1명의 1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수별 패스 상품의 경우 업체 및 강사에 따라 수강기간 및 제공 강의의 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수강기간은 1년 또는 다음 해 국가직 또는 서울시 시험일 까지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의의 경우 특정 교수의 전체 강의가 제공되거나 꼭 수강하여야 하는 필수 커리큘럼을 선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가격은 보통 20~30만 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특정 교수의 심화이론 강의 1개 + 기출 문제풀이 강의 1개 + 동형 모의고사 강의 1개 정도만 수강하여도 단과로 개별 구입 했을 때보다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강사의 단계별 커리큘럼을 모두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교수별 패스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강의를 저렴한 가격으로, 더 오랜 수강기간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패키지 강의

2개 이상의 강의를 10~3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묶어 판매하는 강의 유형이다. 이론 + 문제풀이 패키지와 같이 동일한 강사의 강의를 2개 이상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군무원 패키지와 같이 특정 시험 과목만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5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수강기간을 개별 단과 수강기간보다 짧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인강 사용법

① 학습 로드맵

시기	강의 수강	학습 내용
1-2개월 차	이론입문 종합반	전 과목 개념 정리. 이 과정에서는 강의의 내용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려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개념을 파악하고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핵심사항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3-4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1)	이 시기에는 다섯 혹은 일곱 과목 강의를 한꺼번에 수강하기 보다는 어학과목(국어·영어) 위주로 2-3과목, 혹은 3-4과목의 강의 정도만 수강하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암기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시기에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나머지 과목도 1-2개월 차에 수강한 종합반 강의를 토대로 최소한 주 1회 반복적으로 복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5-6개월 차	기본 + 심화이론 강의(2)	3-4개월 차에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3-4개월에 수강한 과목에 대한 복습을 함께 진행한다.
7-8개월 차	기출 + 단원별 문제풀이	기출문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문제 유형 적응과 함께 취약한 파트를 확인하여 이론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한다.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0개월 차	동형모의고사 문제풀이	실전에 대비하여, 동일한 문제 형태와 시간 분배 연습을 통해 실력을 완성하여야 한다. 인강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답노트의 암기를 병행하도록 한다.
11-12개월 차	테마별 특강 + 최종 마무리 특강	이 시기에는 최종 마무리 특강을 통해 과목별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한다. 또한 특정 파트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 있다면, 테마별 특강을 통해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해당 파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와 더불어 기출문제와 오답노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효과적인 인강 학습 TIP

▣ 유해사이트 및 메신저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인강을 수강하다 보면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어서 듣는다는 게, 한없이 쉬게 되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강의 수강 도중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메신저 사용 등으로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해사이트와 메신저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강의 집중모드 기능 등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다른 인터넷 창을 활성화 할 수 없다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중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인강을 혼자 진도에 맞추어 수강할 의지가 부족하다면, 온라인 스터디를 활용하자. 특히 국어과목의 사자성어와 고유어 파트라든가, 영어 단어 암기는 스터디를 하지 않게 되면 확실히 게을리 하기가 쉽다.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두기 위해 온라인 스터디를 추천한다.

■ 인강을 수강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학습하자

인강도 학원시간을 정하듯 매일 아침 8~10시, 수요일 저녁 7~9시와 같이 본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 없이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완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덧 강의 수강기간이 종료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간혹 인강 수강 시간을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 실강 진행일 다음날 해당 진도를 반드시 수강하겠다고 빠듯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통 인강은 실강이 진행된 후 1~2일 이내 업로드가 되지만, 가끔 파일 변환 작업 등의 오류나 지연 등으로 업로드가 다소 늦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강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강 진행일로부터 2~3일 이후 인강을 수강하는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실전을 미리 경험하는 모의고사

(1) 모의고사, 꼭 봐야할까?

매달 정기적으로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를 응시해야 하는지 수험생으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도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응시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본인은 응시하지 않았다는 수험생들도 있다.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시험을 미리 응시해봄으로써 응시한 수험생으로서는 개인 성적 및 통계분석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쯤인지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계획을 설정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시험장과 유사한 분위기를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배 및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러나 간혹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여 좌절하거나 또는 자만심을 가지는 수험생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의고사 점수는 단지 실전으로 가는 길의 하나의 '과정'이나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모의고사를 응시하되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는 태입이라면 최대한 감정을 컨트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모의고사 응시의 장점

- 본인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 할 수 있다. 합격을 위한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나의 성적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나의 현재 성적 위치와 회차별 성적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영역별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과목의 영역별 분석을 통해 본인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집중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
- 시험 치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시험에서 실패하는 요인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요령 부족일 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시간 안배하는 방법, 모르는 문제를 과감히 결단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시험 치는 방법 등을 기를 수 있다.
- 실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모의고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마킹 실수 등 불합격요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실전에서 답안을 밀려쓰고,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못하는 등의 실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다.

“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 메이슨 쿨리 -

”

3. 과목별 공부 방법

(1) 국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국가직

자료: 2018~2012. 국가직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계	비율
문법	국어문법	3	5	3	5	3	2	3	24	17.1
	어문규정	2	2	2	3	4	5	2	20	14.3
	정서법	1		1		1	2	2	7	5
	소계	6	7	6	8	8	9	7	51	36.4
어휘	어휘		1	1		1		3	6	4.3
	한자	2	3	2	2	1	2	1	13	9.3
	소계	2	4	3	2	2	2	4	19	13.6
독해	비문학	국어의 활동	3		3	3	5	4	19	13.6
		글의 독해	4	2	4	4	2	4	24	17.1
	소계		7	2	7	7	7	8	43	30.7
	문학	현대문학	2	5	3	1	2		4	12.2
		고전문학	3	2	1	2	1		10	7.1
	소계		5	7	4	3	3	1	27	19.3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18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국어 총평

2018년 국가직 9급 국어 과목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다. 국어 문법 5문제, 어문 규정 2문제, 정서법 1문제, 어휘 2문제, 비문학 7문제, 문학 5문제로 2017년에 비해 비문학 영역의 출제 비율이 높아졌고, 문법과 문학 영역의 출제 비율이 낮아졌다. 문법 영역은 음운론 1문제, 형태론 2문제, 의미론 1문제가 출제되었다. 어문규정은 띄어쓰기 1문제와 로마자 표기법 1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 영역은 한자로만 2문제가 출제되어 여전히 한자 비중이 컸으며, 비문학 영역은 중심 내용 파악하기 1문제, 정보 찾기 2문제, 사실 판단 1문제, 단락의 통일

성 1문제,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1문제, 오류 찾기 1문제가 출제되어 2017년보다 비문학의 비중이 더 늘었다. 문학 영역은 현대 문학 2문제, 고전 문학 3문제로 2017년에 비해 현대 문학의 비중이 줄었다.

서울시

자료: 2018~2012, 서울시 9급 기출문제 기준

대단원	소단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계	비율	
문법	국어문법	3	4	8	5	5	1		26	18.6	
	어문규정	5	3	4	4	5	6	4	31	22.1	
	정서법	1					2		3	2.2	
	소계	9	7	12	9	10	9	4	60	42.9	
어휘	어휘	2	3	1	2	1	1	2	12	8.6	
	한자	1	2	3	3	4	2	3	18	12.8	
	소계	3	5	4	5	5	3	5	30	21.4	
문학과 비문학	비문학	국어의 활동	2				1	1	4	2.9	
		글의 독해	3	3	1	2	1	3		13	9.3
	소계		3	5	1	2	1	4	1	17	12.2
	문학	현대문학	4	3	3	2	3	1	7	23	16.4
		고전문학	1			2	1	3	3	10	7.1
	소계		5	3	3	4	4	4	10	33	23.5
	합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2018년 서울시 9급 필기시험 국어 총평

2018년 서울시 9급 과목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국어 문법 3문제, 어문 규정 5문제, 정서법 1문제로 문법 영역의 문제 출제 비율이 2017년에 비해 높아졌고, 어휘 3문제, 비문학 3문제, 문학 5문제로 어휘와 비문학의 출제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문학의 출제 비율은 높아졌다. 문법 영역은 음운론 1문제, 형태론 3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문 규정은 표준 발음법 1문제, 표준어 규정 1문제, 한글 맞춤법 1문제, 띄어쓰기 1문제가 출제되었고 정서법은 올바른 문장 쓰기 1문제가 출제되었다. 어휘는 나이 관련 말과, 속담이 각각 1문제, 한자성어가 1문제 출제되었다. 비문학에서는 내용 일치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으며 문학은 현대 문학사 3문제, 현대 문학 이론 1문제, 고전 문학 1문제로 현대 문학의 비중이 높았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국어는 각 영역별로 출제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문법(국어 문법·어문 규정·정서법), 어휘, 비문학, 문학의 각 영역에 따라 자주 출제되는 대표 유형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어 문법

□ 유형 분석

품사 분류·형태소 분석·합성어와 파생어 구별 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간혹 시제나 존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문법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 출제 사례

‘깡다’의 활용형에 적용된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또 다른 음운 하나로 바뀌는 현상
- 도치: 두 음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현상

- ① ‘깡는’은 교체 현상에 의해 ‘깡느’으로 발음된다.
- ② ‘깡아’는 탈락 현상에 의해 ‘까까’로 발음된다.
- ③ ‘깡고’는 도치 현상에 의해 ‘깡꼬’로 발음된다.
- ④ ‘깡지’는 축약 현상과 첨가 현상에 의해 ‘깡찌’로 발음된다.

정답 ①

해설 ‘깡는’은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깡는]으로 발음되고, 이는 다시 비음화 현상으로 인해 [깡느]으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 현상과 비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분석 ② ‘깡아[까까]’는 탈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것으로 연음된 것이다.

③④ ‘깡고[깡꼬], 깡지[깡찌]’는 음절 끝소리 현상에 따라 [깡고, 깡지]로 발음되고, 이는 경음화 현상으로 인해 [깡꼬, 깡찌]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 현상과 경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이므로 도치 현상, 축약 현상, 첨가 현상과는 무관하다.

어문 규정

□ 유형 분석

어문 규정에 맞는 표현을 찾거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을 찾는 형태로, 문제 유형은 대단히 단순하다. 어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헛갈리기 쉬운 표현은 따로 정리해서 자주 보아야 한다.

□ 출제 사례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씹싸름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주책이다, 걸울음
- ③ 찰지다, 앞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정답 ④

해설 덩쿨(X) ⇨ 덩굴/넙쿨(O)

‘개발새발’은 2011년 추가 표준어이고, ‘이쁘다’와 ‘마실’은 2015년 추가 표준어이다.

오답분석 ① ‘등물’, ‘남사스럽다’, ‘씹싸름하다’, ‘복숭아뼈’는 2011년 추가 표준어이다.

② ‘까탈스럽다, 걸판지다, 걸울음’은 2016년 추가 표준어이다.

③ ‘찰지다, 앞새, 꼬리연, 푸르르다’는 2015년 추가 표준어이다.

정서법

□ 유형 분석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의미가 모호한 문장,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출제되었던 표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관련 기출도 잘 챙겨야 한다.

□ 출제 사례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9급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정답 ①

해설 유정 명사 뒤에는 조사 '에게'를, 무정 명사 뒤에는 조사 '에'를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무정 명사인 '일본' 뒤에 조사 '에'가 쓰인 것은 어법에 맞다.

오답분석 ② '요구되어지다'는 이중 피동 구성이 쓰였다. '되다'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요구되다'라고만 써도 피동사가 되므로 피동의 의미를 가진 '-어지다'를 쓸 필요가 없다.

③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바르지 않다. 주어 '이것은'을 초점에 둔다면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라고 고쳐야 하고, 서술어인 '생각이 든다'에 초점을 둔다면 '나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로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

④ 목적어 '16강 티켓'의 서술어가 누락되어있다. '16강 티켓을 획득할(얻을) 가능성'으로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

어휘

□ 유형 분석

순우리말, 관용어, 속담, 한자어, 한자 성어 등에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 단순히 의미를 묻는 형태를 비롯하여, 문장에서의 쓰임을 묻거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한자 성어 및 속담을 연결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초고를 校訂하여 책을 완성하였다.
- ② 내용이 올바른지 서로 交差 검토하시오.
- ③ 전자 문서에 決濟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提高 바랍니다.

정답 ①

해설 '校訂(학교 교, 바로잡을 정)'은 '남의 문장 또는 출판물의 잘못된 글자나 글귀 따위를 바르게 고침.'이라는 뜻으로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다.

오답분석 ② '交差(사귄 교, 다를 차)'는 '벼슬아치를 번갈아 임명함.'이라는 뜻으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다. 문맥상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이라는 뜻의 '交又(사귄 교, 갈래 차)'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③ '決濟(결단한 결, 건널 제)'는 '증권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다. 문맥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이라는 뜻의 '決裁(결단할 결, 마를 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提高(끌 제, 높을 고)'는 '쳐들어 높임.'이라는 뜻으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다. 문맥상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함.'이라는 뜻의 '再考(거듭 재, 생각할 고)'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비문학

□ 유형 분석

작문·화법·독서와 관련된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낮으며, 비문학 지문의 독해 파트 출제율이 가장 높다. 정보 확인(일치·불일치), 단락 순서 배열, 글의 특징 파악, 이어질 내용 유추, 주제 찾기 등의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2018. 국가직 9급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 인상주의자들은 순간순간의 감각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굳건하고 지속적인 형태는 소홀히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다. 그는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cubism)를 일으켰고, 반 고흐의 방법은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일으켰다. 고갱의 해결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을 이끌어 냈다.

- ① 세잔은 인상주의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 ② 고흐는 인상주의가 강렬한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다.
- ③ 고갱은 인상주의가 충분히 솔직하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다.
- ④ 세잔, 고흐, 고갱은 인상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각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정답 ③

해설 “고갱은 더 단순하고 더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를 통해 인상주의가 단순하지 않아 불만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분석 ① “세잔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균형과 질서의 감각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반 고흐는 인상주의가 시각적 인상에만 집착하여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한 나머지 미술의 강렬한 정열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이 세 사람의 화가가 모색했던 제각각의 해법은 세 가지 현대 미술 운동의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잔은 입체주의, 반 고흐는 표현주의, 고갱은 프리미티비즘의 방법을 이끌어 냈다.

문학

□ 유형 분석

현대 문학에서는 시와 소설의 비중이 높으며 작품 감상의 관점, 표현상 특징 등 문학 작품의 이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

고 있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학에 비해 출제율은 낮으나, 시조의 출제율이 높고 ‘한자’·‘어휘’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드물게 문학사와 관련된 문제도 종종 출제되고 있다.

□ 출제 사례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음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는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정답 ④

해설 마지막 부분의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는 장인과 소작인들의 뒷거래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이 장인에게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바쳐야만 하는 사정을 그려낸 것이다.

오답분석 ① “번이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라는 부분을 통해 마름을 호박개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하고 있다.
 ② 비속어 ‘이놈’과 존칭어 ‘장인님’을 혼용하여 ‘이놈의 장인님’이라는 표현을 구사해 해학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③ ‘손버릇이 아주 못됐고, 동네에서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이 없으며,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큼 두루 인심을 잃었다.’는 부분과 ‘뇌물을 주지 않으면 그 해에는 땅을 잃는다.’는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됄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문법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꼽히는 영역 중 하나가 문법이다. 그 이유는 문법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암기만 하기 때문이다. 문법의 각 영역인 음운론·형태론·문장론·통사론·화용론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예를 통하여 각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문 규정

옳은 것을 찾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대다수이므로 출제 유형이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하다. 어문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문법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에 예외 규정 위주로 암기하면 공부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어문 규정에 있는 예들은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고, 헛갈리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서법

문법과 어문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높임법의 사용,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등을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문장을 유형별로 모아 두고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실력을 쌓는 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어휘

어휘는 순우리말·한자어·속담·한자 성어·관용어 등 그 범위가 넓고, 시행처와 시행 연도에 따라 출제되는 어휘의 난이도도 천차만별이다.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 두고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암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시된 문장이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어휘를 찾는 문제도 있으니 글의 맥락을 통해 어휘를 유추해 내는 훈련도 필요하다.

비문학

최근에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지문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문을 접하면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풀어 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독해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틀리는 유형은 따로 분류하여 그 유형만 집중적으로 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헌

최근에는 단순 분석이나 암기로는 풀 수 없는, 작품 전체의 감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스스로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별로 분석되어 있는 주제나 특징 등을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찾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실제 작품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이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한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어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8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illegible]

독해	주제·요지 찾기		1	1		2	3	1		8	5
	제목 찾기	2	1	2	2		1	2	1	10	6.25
	빈칸 내용 추론	2	3	2	2	3	3	3	5	23	14.375
	지칭 추론										
	내용 요약										
	내용 파악·일치	3	1	3	2	3		2	1	15	9.375
	주어진 문장 넣기	1	2	1	2	1	1	1	1	10	6.25
	문단 순서 정하기	1	1	1	1	1	1	1		7	4.375
	무관한 문장	2	1	1	1	1			1	7	4.375
	전후 내용 추론										
	연결사						1		1	2	1.25
	소계	11	10	11	10	11	10	10	10	84	52.5
영작과 생활영어	영작	1	2	1	2	1	2	2	2	13	8.125
	생활영어	2	2	2	2	2	2	3	2	17	10.625
	소계	3	4	3	4	3	4	5	4	30	18.75
합계		20	20	20	20	20	20	20	20	160	100

○ 총평

최근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의 문항을 살펴보면, 어휘 및 속어가 각각 2문제씩 총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은 영작을 포함하여 3문제, 독해가 11문제로 총 20문항씩 매년 영역별로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어휘 영역에서는 유의어 고르기 및 빈칸 완성형 문제, 생활영어 표현 문제, 동사구를 묻는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지문 길이는 짧으나 지문 및 보기에 나온 어휘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생활영어 문제는 두 사람이 적절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문법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법 지식을 묻는 문제와 영어 표현 및 구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작형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문장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이며,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난이도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

독해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주제나 요지 찾기, 빈칸 내용 추론에 관한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사 지문을 포함한 수준 높은 내용의 지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다. 문제마다 문장 구조가 복잡한 지문이나 토플 수준의 어휘를 포함한 지문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② 영역별 출제 유형 분석

공무원 어휘 영역

□ 유형 분석 1

어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지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유의어를 고르는 방식이다. 수준 높은 어휘들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본 어휘 실력이 있더라도 공무원 빈출 어휘나 동의어 정리를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 해석을 통해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문제들도 출제되므로, 단순 어휘 암기보다는 예문을 통해 어휘의 뜻을 유추해 보는 학습 습관도 필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2018. 국가직 9급

Robert J. Flaherty, a legendary documentary filmmaker, tried to show how indigenous people gathered food.

- | | |
|----------------|-------------|
| ① native | ② ravenous |
| ③ impoverished | ④ itinerant |

정답 ①

해설 Robert J. Flaherty, 전설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는 어떻게 토착민들이 음식을 모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 유형 분석 2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청자와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출문제에 나온 빈출 표현을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A: Do you know how to drive?

B: Of course. I'm a great driver.

A: Could you teach me how to drive?

B: Do you have a learner's permit?

A: Yes, I got it just last week.

B: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A: No, but I can't wait to _____.

① take a rain check

② get my feet wet

③ get an oil change

④ change a flat tire

정답 ②

해석 A: 당신은 운전할 줄 알아요?

B: 물론이죠. 운전 잘 합니다.

A: 운전하는 걸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B: 임시 면허증이 있어요?

A: 지난주에 받았습시다.

B: 운전해 본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하지만 정말 시작하고 싶습니다.

① 나중에 하다

③ 오일을 교환하다

④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하다

해설 빈칸 앞의 대화문의 내용은 운전해 본 적 있는지 경험을 묻고 있다. 빈칸이 포함된 대화문의 대답은 운전 경험은 없지만 하고 싶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운전하는 이야기인 ②가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 문법 영역

□ 유형 분석 1

문법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어법상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출제된다. 지문이 길고, 밑줄 친 부분의 문법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 문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부터 지엽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까지 두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A few words caught in passing set me thinking.
- ② Hardly did she enter the house when someone turned on the light.
- ③ We drove on to the hotel, from whose balcony we could look down at the town.
- ④ The homeless usually have great difficulty getting a job, so they are losing their hope.

정답 ②

해설 ① 지나가다가 잡힌 몇 단어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② 그녀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불을 켜다.

③ 우리는 호텔로 운전해 갔고 그 호텔의 발코니에서 우리는 마을 전체를 내다 볼 수 있었다.

④ 그 홈리스들은 직업을 얻는데 대체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해설 ② Hardly had + S + p.p~, when + S + 과거동사.

시제 패턴을 묻고 있다. 따라서 did she enter는 had she entered로 고쳐 써야 한다.

□ 유형 분석 2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제시된 우리말을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여 영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영작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문법 요소(동사 일치, 준동사, 태, 가정법, 관계사)를 염두에 두면서 문장 구조 및 어휘와 숙어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함께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출제 사례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그 연사는 자기 생각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데 능숙하지 않았다.
⇒ The speaker was not good at getting his ideas across to the audience.
- ② 서울의 교통 체증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하다.
⇒ The traffic jams in Seoul are more serious than those in any other city in the world.
- ③ 네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서양 국가에서 중요하다.
⇒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important in western countries.
- ④ 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It turns out that he was not so stingier as he was thought to be.

정답 ④

해설 ④ not so ~ as의 원급비교의 구문이다. so와 as 사이에는 원급이 와야 하므로 stinger를 stingy로 수정해야 한다.

공무원 독해 영역

□ 유형 분석 1

지문에서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빈칸 추론형 문제는 글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어휘력과 문장 구성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유형의 문제는 지문의 빈칸에 적합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삽입하여 지문을 완성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 출제 사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Kisha Padbhan, founder of Everonn Education, in Mumbai, looks at his business as nation-building. India's student-age population of 230 million (kindergarten to college) is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The government spends \$83 billion on instruction, but there are serious gaps. "There aren't enough teachers and enough teacher-training institutes," says Kisha. "What children in remote parts of India lack is access to good teachers and exposure to good-quality content." Everonn's solution? The company uses a satellite network, with two-way video and audio _____. It reaches 1,800 colleges and 7,800 schools across 24 of India's 28 states. It offers everything from digitized school lessons to entrance exam prep for aspiring engineers and has training for job-seekers, too.

- ①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er training facilities
- ② to bridge the gap through virtual classrooms
- ③ to get students familiarized with digital technology
- ④ to locate qualified instructors across the nation

정답 ②

해설 빈칸 전의 Everon's solution?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빈칸이 앞의 본문 내용의 해결책으로 나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 본문 What children in remote parts of India lack is access to good teachers and exposure to good-quality content를 단서로, 인도의 지역별 교육의 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형 분석 2

내용 일치 및 불일치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 또한 자주 출제된다. 내용 일치에 관한 문제는 독해 지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내용에 특정 부분을 근거로 하여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지문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출제 사례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17. 국가직 9급

Taste buds got their name from the nineteenth century German scientists Georg Meissner and Rudolf Wagner, who discovered mounds made up of taste cells that overlap like petals. Taste buds wear out every week to ten days, and we replace them, although not as frequently over the age of fortyfive: our palates really do become jaded as we get older. It takes a more intense taste to produce the same level of sensation, and children have the keenest sense of taste. A baby's mouth has many more taste buds than an adult's, with some even dotting the cheeks. Children adore sweets partly because the tips of their tongues, more sensitive to sugar, haven't yet been blunted by trying to eat hot soup before it cools.

- ① Taste buds were invented in the nineteenth century.
- ② Replacement of taste buds does not slow down with age.
- ③ Children have more sensitive palates than adults.
- ④ The sense of taste declines by eating cold soup.

정답 ③

해석 ① 본문 첫 번째 문장에서 19세기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지 발명된(invented) 것은 아니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본문 2번째 문장에서 나이가 들면서 미뢰는 닳아지고 미각은 약해진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본문 마지막 문장에서 아이들은(어른들처럼) 차가워지기도 전에 뜨거운 스프를 먹어 미각을 둔화시키지 않으므로 더욱 민감한 미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차가운 스프를 먹음으로써 미각이 저하된다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어휘

어휘 문제는 동의어, 문장 내 빈칸 채우기, 독해 지문 내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넣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단순 암기식 학습보다는 예문을 통해 단어의 의미와 쓰임을 익히는 것이 좋다. 또한 필수 동의어나 파생어도 함께 정리하여 어휘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문장 속의 중요한 구문과 표현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생활영어 문제는 상황에 따라 관용적으로 쓰이는 적절한 표현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문법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문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모든 언어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다져 두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며, 시험에 출제되는 문법 포인트를 확실히 알고 그에 맞는 학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실제 문장에서의 문법 활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문법 학습에만 그치지 말고 영작이나 독해와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문법 문제는 철저히 응용문제이기 때문에 기초 실력을 확실히 쌓은 후에 공무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좋다.

독해

많은 사람들이 독해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즉, 독해는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것이다. 독해는 출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선별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접하여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므로 시간 안에 정확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속독하는 훈련 역시 필요하다.

(3) 한국사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대단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계(비율)
한국사의 바른 이해			기록으로서의 역사					1 (0.7%)
선사 시대와 국가의 형성		동예	고조선	신석기	구석기	초기 국가	• 선사 주요 특징 • 삼한 • 고구려	8 (5.7%)
고대 사회의 발전	• 광개토 대왕과 왜구 격퇴 • 신문왕 • 발해의 개승 의식 • 문무왕	• 고구려 발전 • 6두품	• 백제의 발전 • 고구려 소수림왕 • 진골	• 손장금지이유 •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 • 불교(의상 과 원효)	• 중원 고구려비 • 고구려 • 녹읍 • 선종	• 삼국 항쟁 시기 • 법흥왕 • 신라 중대 상황	• 지증왕 • 고분 • 발해 • 의상	23 (16.4%)
중세 사회의 발전	• 서희의 외교 담판 • 팔관회 • 진화	• (우왕) 「직지 심체요절」 • 속종 때 경제 • 풍수지리 사상	• 충선왕 • 경정 전시과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 성종 • 사회 모습 • 농민의 생활	• 공민왕 • 삼별초 • 고려 형벌 • 고려 중인 (향리)	• 노비 • 속종 대 경제 • 「삼국유사」	• 공민왕 • 향·소·부곡 • 「삼국사기」	22 (15.7%)
근세 사회의 발전	• 중종 •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 성리학	• 5가작통법 • 정도전	• 임진왜란 주요 전투 순서 • 이항	• 전기 중앙정치 • 전기 향촌 사회 • 과전법	「농사직설」 간행 시기의 문화	• 전기 사림 • 의정부 서사체 • 함악 • 전기 경제		15 (10.8%)
근대 사회의 대동	• 정조	• 16~18세 기 사실 • 조선 후기 경제 • 흥대용	• 후기 사회 모습 • 대동법	• 영조 • 중인 • 후기 경제	• 정조 • 순조 때 사건 • 동양 삼국 인구 증가의 원인 • 천주교 박해 • 흥대용 • 조선 사상사	• 영조 • 호락 논쟁	• 정조 • 양난 이후 양전 사업 • 사회 변화 • 19세기 항회 • 경제 • 후기 과학· 문화	23 (16.4%)
근대 사회의 전개	• 동학 농민 운동 • 농광회사	• 「현의 6조」 결의문 이후 • 갑신정변 이후 •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 국권 침탈 과정	• 갑신정변 • 개항기 통상 협약 • 대한제국 시기	• 동학농민운동 • 대한민국 국제 • 1907년 이후 사건		• 1차 갑오개혁 • 메가다의 화폐 개혁	• 위정척사 사상	15 (10.8%)
민족의 독립 운동	• 국가 총동 원법 • 토지 조사국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생 활 모습	• 국민 대표 회의 • 손진태 • 하와이 지 역의 민족 운동	• 1920년대 만주 독립 운동 • 의열단 •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비 밀 결사(독립 의군부, 대한 광복회)	• 3·1 운동 • 광복군	• 서간도 신민회 관련 단체 • 만주 무장 항일 운동	• 이광수의 자치·참정론 • 이동휘	16 (11.4%)
현대 사회의 발전	• 이승만과 김구 • 김충렬 오히려 메모와 브라운 각서 사이의 경계 모습		모스크바 3상 회담	• 6·25 전쟁 사건 • 광복 직후 사건	• 4·19 혁명 • 광복 직후 정당	• 주요 사건 • 6월 민주 항쟁	1960년대 경제	10 (7.1%)
통 합	• 역대 지방 행정 제도 • 해외 건문 기록	• 독도 • 의주	풍수지리설	역대농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7 (5%)

○ 전 시대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출제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특정 시대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 시대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전근대사 70%, 근현대사가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들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통일 신라 중대와 하대의 성격 변화, 민정 문서, 고려 광종과 성종, 공민왕의 업적, 고려 집권 세력의 성격, 고려 대외 관계, 신진 사대부의 성격, 15세기의 조선의 주요 왕, 사림파의 성격, 붕당 정치, 18세기 조선의 주요 왕, 대동법과 균역법, 실학자, 조선 후기 경제·사회·문화의 변화, 흥선 대원군의 정책,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광무개혁의 성격, 일제 식민 통치 내용과 민족 독립운동 사건 순서, 해방 공간의 국제 회담 및 주요 사건, 통일 정책 등이 반복 출제되고 있다.

○ 단순히 제도사를 묻는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경제·문화사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각 시대의 대표적인 주요 세력(진골 귀족과 6두품,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 훈구파와 사림파, 위정척사파와 개화사상가 등), 일반 백성의 사회·경제적 생활, 고려와 조선 여성의 지위 변화, 역대 토지 제도의 변화,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변화(대동법, 균역법),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로 인한 신분제의 동요, 문화의 새로운 경향 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 이해력과 논리적 추론을 요하는 수능 유형의 통합적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분류사적 접근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정전과 관수 관급제의 공통된 실시 목적, 기본 개념 간의 상호 관계, 풍수지리설과 도교가 각 시대에 끼친 영향, 나말 여초 호족과 여말 선초 신진사대부의 공통점, 역대 주요 역사서의 성격, 신라와 고려의 불교 변화, 공민왕·조광조·갑신정변 개혁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는 통합형 문제 등이 주목된다. 또 4세기 신라와 고구려의 우호적 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 흥선 대원군의 업적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분석하는 문제 등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 점이 주목된다.

○ 사료와 지문을 통해 기본 개념을 확인하고 역사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 시대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적절한 사료나 지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다. 또 주요 개념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우선 박스 안에 자료로 제시되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선택지에서 맞는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개념·원리의 이해

한국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개념·원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이다. 가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기도 한다.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통일 신라-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 ② 발해-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③ 고려-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 ④ 조선-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① 통일 신라 시대의 행정 구역 중 하나인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아 다스렸다.

▣ 사건 순서 나열

사건을 시대순으로 정확하게 나열하는 문제 유형이다. 정확한 연도보다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 표해록
- ㉡ 열하일기
- ㉢ 서유견문
- ㉣ 해동제국기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③

해설 ㉢ 『해동제국기』(1471, 성종, 신숙주 편찬) ⇨ ㉠ 『표해록』(1488, 성종, 최부 편찬) ⇨ ㉡ 『열하일기』(1780, 정조, 박지원 편찬) ⇨ ㉣ 『서유견문』(1895, 고종, 유길준 편찬)

□ 자료 분석 및 해석

사료, 도표, 그림 등 제시된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수능이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 출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왕 원년: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 왕 9년: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삼국사기』

- ①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 ②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③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 ④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에 등장하는 왕은 신라 중대의 신문왕이다.

- ②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①景德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효소왕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소지왕에 대한 설명이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

기본서를 바탕으로 중요한 기본 개념과 역사적 사실,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전 시대에 걸친 종합적인 이해

단순 암기보다는 전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통찰하여 시대별 역사를 상호 비교·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 좋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흐름을 시대별로 연결 지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은 연표를 철저히 활용하여 시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초기 연맹 왕국 ⇨ 삼국 시대 ⇨ 고려 ⇨ 조선 ⇨ 현대로 가면서 겪게 되는 전환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므로 당시 우리 민족의 과제 및 기득권층과 민중들의 사회 변화 대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도록 한다.

자료를 분석·해석하는 능력 제고

단순한 단답형 문제보다는 자료를 제시하는 수능형 문제가 더 강화될 추세이므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세운 뒤 다양한 사료와 지도, 교과서 심화 과정 분석 등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새로운 이론과 시사 분야 학습

시험 전 새롭게 제시된 이론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영토 문제(간도와 독도), 북한의 핵 문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 새롭게 진행되거나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야도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기출문제로 시험 유형 파악

공무원 한국사 시험은 이전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출문제를 통해 기본서로 학습한 부분의 출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응용력과 더 넓게는 역사를 보는 유연성도 키울 수 있다.

(4) 행정학개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대단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계	비율
행정학 총론	4	3	3	4	5	3	4	26	18.6
정책론	3	4	5	5	4	4	3	28	20.0
조직론	4	4	2	3	3	3	4	23	16.4
인사행정론	4	5	4	3	3	3	4	26	18.6
재무행정론	4	2	4	1	2	2	2	17	12.1
정보사회와 행정			1	1	1	1	1	5	3.6
행정환류론				1		1		2	1.4
지방자치론	1	2	1	2	2	3	2	13	9.3
계	20	20	20	20	20	20	20	140	100

○ 대단원별 출제 경향

국가직 9급 시험은 대체로 행정학 총론과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이 주로 출제되는 편이다. 행정학 총론에서는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행정의 개념, 발달사, 환경, 가치, 주요이론 등)과 접근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정책론에서는 정책의 유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출제된다. 또한 조직론에서는 조직구조모형과 조직관리론, 최근 정부조직에 도입되고 있는 경영혁신기법들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인사행정론에서는 인사행정의 변천사와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재무행정론에서는 예산결정모형과 예산의 과정,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 2018 국가직 9급 총평

이번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는 예년과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묻는 문제는 이

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비교적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느 영역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골고루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무난한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2018년 국가직 9급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기출 문제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신경향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여 문제에 접근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체감 난이도 격차가 있을 수 있어 행정학 이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말 바꾸기 문제 유형

말 바꾸기 문제는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개념을 서술할 때 옳은 개념과 반대되는 내용을 서술하여 틀린 문장이나 옳은 문장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평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대되는 표현의 다른 개념이 있는 경우에 이 또한 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③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④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①

해설 신공공관리론의 관리주의적 논리가 행정 내부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은 공공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정치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이 관리주의적 논리를 우선하고, 정치적 논리를 경시한다고 비판해야 적절하다.

▣ 짝짓기 문제 유형

행정학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여러 가지로 유형화하여 간결하게 정리한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유형별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학문으로, 하위 유형들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이나 예시를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전에는 운이 좋으면 하나의 유형만 확실하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유형별 설명과 예시를 각각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위 개념들이 유형화하여 구성된 부분은 각 유형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공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그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정답 ③

해설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우발적)부패'의 사례이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회에 심각한 해가 없거나 이익추구가 없는 선의의 부패인 '백색부패'의 사례이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 것은 '제도화된(제도적) 부패'의 사례이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공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비거래형 부패'의 사례이다.

▣ 내용 분류 문제 유형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행정학의 이론들은, 하위개념들의 공통적 성격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와 성격이 다른 하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함께 묶어서 숙지하도록 한다.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상징(symbol) ② 강제력(coercion)
③ 전문성(expertness) ④ 준거(reference)

정답 ①

해설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의 유형을 강제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보상적 권력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에서 권력의 원천은 상징(symbol)을 제외한, 강제력(coercion), 전문성(expertness), 준거(reference)로 볼 수 있다.

■ 개념 확인 문제 유형

개념 확인 문제 유형은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개념을 찾거나, 특정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대부분 문제에서 많은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낯선 개념이 출제되더라도 차분하게 문제를 읽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④

해설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에서 평가자의 평가기준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해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이다.

□ 순서 연결 문제 유형

순서 연결 문제는 보통 이론의 발달 순서나 실현 과정, 수립 절차 등을 묻는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으므로 한 번만 순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계별로 구성된 부분은 눈여겨보도록 하고, 과정들에는 논리적 연계성이 있으므로 전후 관계 파악을 확실하게 하도록 한다.

조직이론의 유형들을 발달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18. 서울시 9급

- ㉠ 체제이론
- ㉡ 과학적 관리론
- ㉢ 인간관계론
- ㉣ 신제도이론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조직이론을 발달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적 관리론(1880년대) ⇨ 인간관계론(1930년대) ⇨ 체제이론(1940년대) ⇨ 신제도이론(1970년대)

□ 제도 및 이론비교 문제 유형

행정학의 많은 이론과 제도들은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공통점·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행정학에는 대비되는 개념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 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정답 ②

해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 법령 문제 유형

행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에서는 법령 문제가 자주 출제되며 특히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단, 기존에 출제되었던 법령들은 모두 숙지하도록 하며 새로 개정된 법령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바로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 ②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④ [○] 부속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본부조직에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①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속한다.
- ② [×] 하부기관이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③ [×]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행정학은 전 파트를 통틀어 많은 양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며 반복하여 암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을 보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론 전체를 공부하려 하기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즉, 쓸데없는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의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학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유형만 바뀌어 신경향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반복되어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의 행정학은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외워야 할 부분은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학은 파트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공부 방법은 없는데, 기본서를 통해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과, 기출문제를 통해 이론을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우는 그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암기해야 할 것이다.

(5) 행정법총론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7년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illegible]

○ 중간 정도 난이도의 출제

2018 국가직 행정법총론 시험은 중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평이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난이도는 사례형 문제로 조절하였다. 난이도별로 나눠본다면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 약 3문제,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 약 10문제, 하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7문제 정도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도 최신 판례가 3문제나 출제되었으며, 난이도 있는 사례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 전반적으로 2017년도 하반기 지방직 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하며 조정점수도 유사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서를 여러 회독 정독한 후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사례형 문제 대비 및 최신 판례를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조정점수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분야별 출제 분석

행정법총론 부분에서는 행정법 부분에서 2문제,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에서 1문제로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작용법 부분에서는 행정행위의 출제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밖에 행정입법에서 2문제,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 1문제,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문제 1문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1문제가 출제되어 행정작용법 단위에서만 총 8문제로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였다.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에서 2문제,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에서 1문제씩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1문제, 행정심판에서 1문제, 행정소송에서 4문제가 출제되어 총 6문제가 이 단위에서 출제되었다.

2018년도 국가직 시험에서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단위에서 총 14문제가 출제되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간단한 이론 개념 묻기 유형

행정법에서는 기본적인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와 지문이 길지 않아 단답식으로 묻는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기본 개념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출제 사례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재결
- ② 이발소 영업허가
- ③ 법규명령 제정
- ④ 군 당국의 징발처분
- 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

정답 ⑤

해설 ⑤ 국회사무총장의 소속공무원 임명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작용이므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나, 국회의 권한으로 행사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한다.

□ 법조문의 내용 확인 문제 유형

법과목의 특성상 법조문의 내용 확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기본 이론의 내용이 법조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의 명확한 숙지 및 최신 법조문을 곁에 두고 읽어나가는 습관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규정이 무효확인소송에는 준용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 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③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정답 ③

해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변경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 박스형 문제

최근에는 다양한 문제 출제 유형으로 박스형 문제가 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 긴 지문들을 박스처리 해 놓고 그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이 주요 문제 유형이다. 박스형 문제는 지문의 길이 때문에 집중을 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어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개별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다)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 (라) 관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① (가)원칙에 따라 노후된 건축물을 개수하여 붕괴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원하지 않는다는 한도에서 철거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 (가)원칙 중 필요성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 ② (나)원칙의 요건 중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③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다)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 ④ (라)원칙은 신의성실원칙에 파생된 원칙으로서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 뿐 아니라 관리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판례는 자기구속의 근거를 평등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서도 찾고 있다. 따라서 (다)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판례 확인 문제

법과목의 특성상 판례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법 시험에서는 법조문 확인 문제와 함께 판례가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판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출제 사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돌으로써 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된다.
- ② 처분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③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였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위 처분이 있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등기에 의한 우편송달의 경우라도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14, 2004두619).

□ 사례형 문제

최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 박스로 사례를 실어 놓고, 그 사례에 대한 정답의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이다. 평소 반복적으로 중요 판례를 읽어보는 습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시에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한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이 발생하였다. 환경운동실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甲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甲의 공장에 대해 개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①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甲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물질과 오염물질로 인해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개선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 의무이행심판은 가능하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작위의무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③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7.26, 2010다95666).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출제 경향과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았으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법의 점수를 고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연구해 보도록 하자.

기본 개념

행정법에서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법률 용어들과 기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서를 여러 번 회독하는 것이 기본 개념을 다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쌓아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신 법조문 및 판례

법과목이라는 특성상 법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법조문은 개정이 자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신 법조문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최신 법조문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판례 또한 새로운 판례들이 매년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있다면 선생님이 뽑아주는 최신 판례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학원에서 하는 판례 특강과 같은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혼자서 판례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행정법총론의 출제 유형을 살펴보면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단답형 문제, 법조문 확인 문제, 판례 확인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출제가 기출문제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익히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전체적인 행정법의 틀 잡기 및 반복 학습

행정법은 내용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론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입문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준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즉, 숲을 먼저 본 후에 나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행정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공부가 합격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행정법의 경우에도 반복을 많이 할수록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기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회독 수를 충분히 늘린 후에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문제 유형을 익히고, 틀린 문제나 헛갈렸던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해서 문제 풀이 복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다양한 예상문제 및 모의고사로 실전능력을 기른다면 행정법의 고득점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6) 사회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최근 5년간 국가직 9급 사회 출제 경향

과목	단원	2018	2017	2016	2015	2014
경제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1
	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1				
	3. 시장과 경제 활동	1	2	1	2	2
	4. 국민 경제의 이해	2	2	2	2	1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1	1	2	1	1
소계		5	5	5	5	5
법과 정치	1. 민주 정치와 법	2	2	2	2	3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2	1	2	1	1
	3. 우리나라의 헌법	1	3	1	3	3
	4. 개인 생활과 법	1	1	2	1	1
	5. 사회생활과 법	4	1	1	2	2
	6. 국제 정치와 법		2	2	1	
소계		10	10	10	10	10
사회·문화	1.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1	1	1	1
	2. 개인과 사회 구조	2	2	1	2	1
	3. 문화와 사회	1		1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1		1	1	2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1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1	2	1		
소계		5	5	5	5	5

○ 총평

▣ 2018 국가직 9급 총평

2018년 국가직 사회는 난이도 중상으로 평가된 2017년에 비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었다. 영역별 출제율은 기존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법과 정치에서 10문항, 경제에서 5문항, 사회·문화에서 5문항이 출제되었다. 법과 정치 중에서도 2017년과는 달리 법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히 '사회생활과 법'에서만 4문항이 출제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2018 국가직 9급 사회는 비교적 긴 자료 분석 문제, 독해력을 요하는 제시문이 포함된 문제,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제 문제까지 출제되어 전체 난이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2018 지방직 9급 총평

2018년 지방직 사회는 국가직과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된다. 영역별 출제율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법과 정치 10문항, 경제 5문항, 사회·문화 5문항이 출제되었다. 사회문화는 대부분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법과 정치에서는 선거 관련 자료 분석 문제,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 관련 문제,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경제에서는 국제 수지 표의 계산 문제, 수요-공급 표에서 시장 균형 변동을 추론하는 문제 등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에게 특히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다.

▣ 2018 서울시 9급 총평

한편 2018 서울시 9급 시험은 2018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되었으나 2018 교육행정직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적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영역별 출제율은 경제 6문항, 법과 정치 7문항, 사회·문화 7문항으로, 법과 정치의 출제율이 매우 높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해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중 안전 보장 이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 계층 구조 자료 분석 문제, 고용 지표의 의미 분석과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한 비교 우위 추론 문제가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개념 확인 문제

제시된 개념에 대한 이해 여부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문제유형이다.

다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명령, 규칙 및 처분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이다.

□ 개념 완성 문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어 개념을 완성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다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교육행정직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과 (㉡)의 차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을 고려하면 안 된다.

㉠	㉡	㉢
① 평균 수입	평균 비용	암묵적 비용
② 평균 수입	평균 비용	경제적 비용
③ 총수입	총비용	매물 비용
④ 총수입	총비용	기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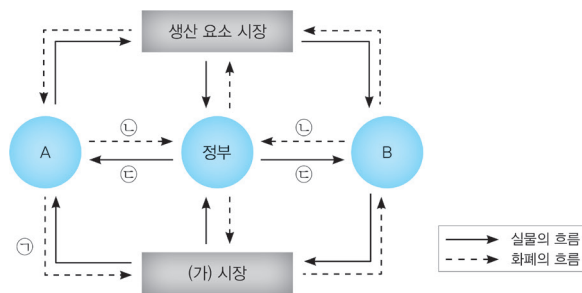
정답 ③

해설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최대로 하고자 한다. 이때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인 매물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개념 추론 문제

제시된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추론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다.

다음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 ③ B는 (가)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④

해설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식으로, Ⓛ은 소비지출, Ⓜ은 세금, Ⓜ은 공공재, A는 가계, B는 기업, (가)는 생산물 시장이다. ④에서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A(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맞다.

- ① 임금, 이자, 지대 등은 Ⓛ 소비지출이 아니라 분배활동에 해당한다.
-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세율 인하 정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 세금의 크기는 작아진다.
- ③ B(기업)는 생산물시장의 공급자로, 효용의 극대화가 아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사례 제시 문제

제시된 사례의 개념을 이해·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갑은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회사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며, 현재 회사 내 신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쟁업체 직원 을이 현재 연구 중인 ○○전자회사 신기술 관련 정보를 빼내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두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을은 초등학생인 갑의 차남 병을 유인하여 데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병의 생명에 대한 을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자 갑은 당해 신기술 관련 정보를 을에게 알려주었다.

-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범죄가 성립된다.
- ②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
- ③ 갑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으로,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시된 갑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 책임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책임성 조각 사유에는 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이 있다.

- ①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이 되나, 책임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불성립된다.
- ③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이지 책임성 조각사유가 아니다.
- ④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 위법성 모두 해당하지만 책임성이 조각되었다.

▣ 자료 제시 문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다음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 서울시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정답 ④

해설 자료로 제시된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자 'B'는 만 17세로 연소근로자이다.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 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④에서 A는 근로 시간을 9시부터 20시까지 설정하여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 ① B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료 해석 문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다음은 X재와 Y재 시장에서 각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재화의 주어진 가격 하에서 X재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 증가할 때, 각 재화 시장에 일어나는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직

재화(개) \ 가격(원)		80	90	100	110	120
X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400	500	600	700	800
Y재	수요량	800	700	600	500	400
	공급량	600	600	600	600	600

- ①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높아진다.
- ② X재와 달리 Y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③ Y재의 판매 수입이 X재의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 ④ 각 재화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입 증가율은 동일하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수요 및 공급표에서 X, Y재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100원, 600개로 동일하지만, X와 Y재의 수요량이 각각 200개씩 증가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은 700개, 균형 가격은 110원이 되고, Y재의 균형 거래량은 600개 균형 가격은 120원이 된다. 따라서 Y재의 균형 가격이 X재의 균형 가격보다 증가한다.

② X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Y재는 변화가 없다.

③ X재의 판매 수입은 $700 \times 110 = 77,000$, Y재의 판매 수입은 $600 \times 120 = 72,000$ 으로 X재의 판매 수입이 많아진다.

④ X의 가격 상승률은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으므로 10%이지만, 판매 수입 증가율은 60,000원에서 72,000원으로 20% 커진다.

□ 계산형 문제

경제 파트에서 출제되는 비교적 난도가 높은 문제 유형으로,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100원을 가진 갑은 다음 A, B 프로젝트 중 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갑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한 B 프로젝트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text{예상 수익률} = \text{예상 수익} \div \text{투자 자금}$) 2018. 경찰직 1차

- A 프로젝트는 100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연 10%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B 프로젝트는 200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고, 부족한 돈은 연 5%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 | | |
|--------|--------|
| ① 5.6% | ② 6.1% |
| ③ 6.6% | ④ 7.6% |

정답 ④

해설 경제적 선택이 합리적으로 되려면,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A 프로젝트의 수익은 10원($100\text{원} \times 10\%$)이다. B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금 100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따라서 5원($100\text{원} \times 5\%$)의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B 프로젝트 선택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구하는데, B 프로젝트 선택 시 발생하는 대출 이자 5원은 명시적 비용에, A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10원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B 프로젝트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15원($10\text{원} + 5\text{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최저 연간 예상 수익률은 $\text{예상 수익}(15\text{원}) \div \text{투자 자금}(200\text{원}) = 7.5\%$ 이다. 따라서 연간 수익률은 7.5% 이상이어야 하므로 답지 중 ④ 7.6%가 가장 적절하다.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사회는 응용 과목이다. 각 내용을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문제보다 다양한 표와 제시문을 주고 해당 이론을 유추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는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론 학습은 물론, 다양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 풀이도 함께 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여 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라는 이질적인 세 과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 특성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많은 수험생들이 경제 때문에 사회 과목을 기피하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이 단시간에 빠르게 풀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제 파트에서 우려하는 것만큼의 어려운 계산 문제 풀이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심리적인 위축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는 무엇보다도 ‘그래프 해석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교재에 있는 도표와 그래프를 보면서 흐름을 익혀야 한다. 공부할 때 연습장을 옆에 두고 직접 따라 그려 보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게 쓰이는 용어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수요와 수요량, 희귀와 희소,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등 서로 비슷한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지해야 문제를 풀 때 해당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경제 분야 계산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계산 문제는 다양한 문제풀이 연습이 이루어져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법과 정치

법과 정치는 사회 세 과목 중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고득점을 원한다면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정치는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주 보면서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처음 공부할 때는 추후 암기 과정이 수월하도록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후에 세부 내용을 학습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범위를 늘려서 이론 공부의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론서의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습득한 후,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 봄으로써 보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공부 방법일 것이다.

사회·문화

사회·문화는 암기해야 할 분량이 다른 두 과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내용 또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대신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표와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비하여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사회·문화에서 다루는 용어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 쓰임을 평소에 쓰던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해하면 틀리기가 쉽다. 예를 들어, '성찰적 태도'를 단순히 '자신의 연구를 반성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까지 적극적·능동적으로 살피는 태도'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원에서 소개하는 이론이나 주장을 지칭하는 핵심 어구는 형광펜으로 체크하는 등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해당 지칭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시험을 볼 때 제시문이나 보기에 아무리 사족이 많이 달려 있더라도 그 핵심어 하나를 통해서 해당 이론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수학

① 출제 경향 살펴보기

2018년 국가직 9급 출제 경향

단원	세부 단원	2018
수학I	문자와 식	•복소수 •나눗셈의 정의 •다항식의 연산
	방정식과 부등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평행이동
	소계	6
수학II	집합과 명제	집합
	함수	•전단사함수(=일대일대응) •역함수 •무리함수
	수열	등차수열
	지수와 로그	상용로그
	소계	7
미적분I	수열의 극한	극한의 성질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미분	도함수 미분
	적분	정적분
	소계	5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확률
	통계	확률분포
	소계	2
합계		20

○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

2018년 4월 7일에 치러진 국가직 수학 시험은 개정 수학 범위에서 출제된 시험으로 수학I 6문항, 수학II 7문항, 미적분I 5문항, 확률과 통계 2문항이 출제되었고, 전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된 시험이었다.

국가직 15번 문제가 연립부등식을 통해 최솟값과 최댓값을 찾는 문제였는데 연립부등식을 치환하여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나머지 문항들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전 단원에 걸쳐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했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시험으로 생각된다.

○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음

9급 공무원 수학에서는 깊은 사고력이나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는 문제보다, 단원별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추후 보다 복잡한 계산이나 응용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는 있지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앞으로 2~3년까지는 지금까지 출제된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출제 유형 분석

▣ 기본 성질을 묻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 하나로 해당 개념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부정적분 $\int (x+1)^2 dx - \int (x-1)^2 dx$ 를 구하면?

- ① $\frac{1}{2}x^2 + C$ (단, C 는 적분상수)
- ② $x^2 + C$ (단, C 는 적분상수)
- ③ $2x^2 + C$ (단, C 는 적분상수)
- ④ $\frac{1}{3}x^3 + C$ (단, C 는 적분상수)

정답 ③

$$\begin{aligned}
 \text{해설} \quad & \int (x+1)^2 dx - \int (x-1)^2 dx \\
 &= \int \{(x+1)^2 - (x-1)^2\} dx \\
 &= \int 4x dx \\
 &= 2x^2 + C
 \end{aligned}$$

○ 정의와 그에 따르는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문제

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와 그에 따르는 공식과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다.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공식들을 정확히 외우도록 한다.

자연수 n 에 대하여 곡선 $y = \frac{1}{2^n}x - x^2$ 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

이를 A_n 이라 할 때, $\sum_{n=1}^{\infty} A_n$ 의 값은?

① $\frac{1}{42}$

② $\frac{1}{43}$

③ $\frac{1}{44}$

④ $\frac{1}{45}$

정답 ①

해설 $y = a(x-\alpha)(x-\beta)$ 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S = \frac{|a|(\beta-\alpha)^3}{6} \text{ 공식을 사용하면}$$

$$A_n = \frac{1}{6} \times \left(\frac{1}{2^n}\right)^3 = \frac{1}{6} \times \left(\frac{1}{8}\right)^n$$

무한등비급수의 합이므로

$$\sum_{n=1}^{\infty} A_n = \frac{\frac{1}{6} \times \frac{1}{8}}{1 - \frac{1}{8}} = \frac{1}{42}$$

○ 2가지 이상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

2가지 이상의 개념에 대한 정의와 공식(조건, 성질 등)을 적용하여 푸는 유형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단원별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르게 풀 수 있다. 다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 복잡하게 출제될 수도 있는 유형이다.

함수 $f(x)$ 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정적분 $\int_{-3}^3 (x-1)f(x)dx$ 의 값은?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 f(x)$ 이다.

(나) $\int_0^3 f(x)dx = -2$

- ① 0
- ② 4
- ③ 8
- ④ 12

정답 ②

해설 $f(-x) = f(x)$ 이므로 $f(x)$ 는 우함수(y 축 대칭)이다.

따라서 $xf(x)$ 는 기함수이다.

$$\begin{aligned}\int_{-3}^3 (xf(x) - f(x))dx &= \int_{-3}^3 xf(x)dx - \int_{-3}^3 f(x)dx \\ &= 0 - 2 \int_0^3 f(x)dx \\ &= 4\end{aligned}$$

○ 문장이나 그림으로 주어진 것을 식으로 바꾸어 푸는 문제

식이 직접 주어지지 않고 문장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문제를 보고 식으로 바꾸어 푸는 유형으로,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다. 주어진 문장이나 그림에서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2일 때, 세 눈의 수가 모두 같을 확률은?

① $\frac{1}{21}$

② $\frac{1}{23}$

③ $\frac{1}{25}$

④ $\frac{1}{27}$

정답 ③

해설 합이 12가 나오는 사건 = A

세 눈이 모두 같은 사건 = B 라 하면,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B|A) = \frac{P(A \cap B)}{P(A)}$ 이다.

합이 12가 되는 사건을 나열하면

(6, 5, 1) : 6가지, (6, 4, 2) : 6가지, (6, 3, 3) : 3가지

(5, 5, 2) : 3가지, (5, 4, 3) : 6가지, (4, 4, 4) : 1가지

$\therefore \frac{1}{25}$

③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수학은 정확한 기본 개념을 안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과목이다. 특히 공무원 수학은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념 문제여서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무리하게 풀기 보다는 기본 개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념을 익힌 다음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9급 공무원 수학의 경우 20분 안에 20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분에 1문제를 풀어야 한다. 따라서 반복적 학습을 통해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를 보지 않고 직접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공부할 때 풀이를 보면 그 순간 이해가 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풀이를 보지 않고 직접 풀었을 때 막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를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풀이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망쳐버릴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개념을 익힌다는 마음으로 풀이를 참고하여 풀어 보더라도 이후에는 풀이를 보지 않고 직접 풀어봄으로써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원별 학습 방향

수학 I	수학 I은 기본적인 수학 지식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단원들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개념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곱셈 공식·인수분해 공식,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등으로 구성된 다항식 단원은 기본 개념과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점수를 얻고 가야 할 단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반복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중 복소수,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다른 단원과 융합하여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익혀야 할 개념이다. •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직선·원·포물선 등 기본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각 도형과 직선 간의 관계, 두 직선 사이의 관계, 직선의 기울기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수학 II	각 단원마다 나오는 계산문제와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는 집합의 연산법칙과 명제의 역·대우, 필요조건·충분조건·필요충분조건 등 기본 공식과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 • 함수 단원은 합성함수와 역함수,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등 여러 가지 함수의 특징과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 수열 단원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잘 이해하고 일반항과 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는 개정수학의 도입으로 출제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복잡한 유형의 문제보다는 지수·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거나 다른 단원과 융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수·로그의 개념과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미적분 I	복잡한 응용문제보다는 계산과 정의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무한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한급수가 수렴할 조건과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함수의 극한 단원은 함수의 극한 계산문제, 연속의 정의를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 미분법과 적분법 단원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이 중요하며 미분과 적분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확률과 통계	각 단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개념에 따른 공식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순열과 조합 단원은 순열과 조합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항정리에서 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 원순열, 중복순열 등의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확률 단원은 확률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독립시행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 통계 단원에서는 확률분포표를 보고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항분포·표본평균·정규분포·모평균의 추정 등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알짜배기 그룹 스터디 전략

혼자 공부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공부 페이스도 잃기 쉽다. 합격생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스터디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룹 스터디에 대해 알아보고 똑똑하게 활용해보자.

(1) 생활 스터디

공부 패턴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침 출석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지각자가 있을 시에는 벌금 등을 걷는다. 점심때는 함께 점심 식사 후 오후 공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한다. 만약 아침 출석이나 점심 출석 때 모두 결석하면 가중해서 벌금을 걷고 모은 돈으로 공통의 학습 자료(프린트물, 제본)를 구입하는 데에 쓰거나 간식 등을 사서 함께 나누어 먹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문제풀이 스터디

주1~2회 정도 일정시간에 모여 2시간 정도 문제풀이 스터디를 진행한다. 문제풀이 스터디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학원 게시판 이용, 학교 게시판 이용, 온라인 카페 이용 등의 방법이 있다. 스터디원은 서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구성하기 보다는 서로 약간 어렵고 성실한 타입의 수험생 몇 명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다보면 간혹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과목을 정해서 번갈아가며 문제를 만들어오고 출제자와 비출제자 모두 함께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푼다. 채점 후 오답을 체크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여 해결한다.

(3) 기본서 회독 점검 스터디

2~3명의 수험생(기본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수험생끼리 모이는 것이 좋다)이 해당 일자에 읽어야 할 기본서 분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각자 자습 후 일정 시간에 모여 기본서를 꼼꼼히 정독하고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스터디이다. 예를 들어 오늘 읽어야 할 분량이 30페이지라면 해당 페이지를 읽고 서로 모여서 한 사람은 책을 덮고 한 사람은 책을 보면서 해당 범위에서 짧은 문제를 내 본다.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잘 읽고 학습했다면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스스로 해당 분량을 다 읽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벌금을 걷고, 문제를 냈는데 5문제 이상 틀리는 경우에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을 걷는다. 향후 벌금을 모아 기본서 1회독, 2회독, 3회독이 끝나는 날 책거리 형식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먹으며 이번 회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토의한다.

(4) 밥터디

점심, 저녁 등 식사시간에만 짧게 30분 정도 만나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날그날 공부한 내용 중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문 하거나 자신이 만든 암기법 중 참신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 등을 공유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스터디 + 밥(식사) 형식의 모임이다. 혼자 식사를 하기 힘들어하거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의 수험생은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하다. 또 그날그날 학습한 부분을 피드백 할 수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고 서로 질문과 답변 등을 통하여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5) 단어 시험 스터디

매일 또는 주 1~2회 정도 만나 영어 단어나 한자어(한자성어 포함) 등 주로 암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험을 보고 채점한다. 사전에 하루 공부할 분량을 영어 단어장 Day1 혹은 영어 단어 50개 / 한자어 50개 등으로 정하고 시험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해온다. 수기로 적은 문제를 복사해도 좋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프린트 해와도 된다. 제한 시간 20분 등 시험 시간을 짧게 정해 놓고 단어를 잘 외웠는지 테스트 한 후 그날 단어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이 스터디원에게 시원한 음료수 혹은 커피를 사주는 것으로 벌칙을 정해도 좋다. 모여서 시험을 치르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까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스터디에 있어 시간은 금이다!

4. 공부계획 세우기

(1) 공부계획, 왜 필요한가?

① 수험생활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공부 습관이다

1년 정도의 공무원 시험 준비기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가장 빨리 공부 습관을 잡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미 수험 생활 패턴과 공부 습관이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그러한 독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성취를 거둔 상태라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독자가 있다면 일단 책을 읽으면서 2시간 정도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습관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공부계획 세우기’와 ‘공부일기 쓰기’이다.

② 공부계획 세우기

공부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느냐는 것이다. 그 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령 시험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큰 틀에서 연간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1년의 큰 테두리에서 목표를 정하고 월간, 주간, 일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간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보다는 비교적 세분화하여 자신의 학습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영어가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영어 성적을 합격권 내(85점 이상)로 끌어 올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월간, 주간, 일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간(시험일로부터 현재까지 역산한 기간)과 자신의 현재 학습 수준(과목별 성취 수준)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월간계획표를 작성할 때에는 한 달 간을 기준으로 주요 스케줄(실강·인강 개강일, 모의고사, 스터디 일정)을 적고 그 외에 공부 가능한 날짜를 파악해야 한다. 월간 목표를 설정해서 해당 월에 중점적으로 완성이 해야 하는 목표를 적어둔다. 그런 다음에는 월간계획표를 바탕으로 주간계획표를 작성하면 된다. 주간계획은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를 단위로 중점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 형성을 위한 일간계획표를 작성하자. 하루의 계획은 크게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정도로 나누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침에 일어난 이후 대략적인 공부 시작 시간을 설정해 두고 꼭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타임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시험 막바지로 접어들게 되면 공부 분량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므로 새벽이나 취침 전 등 자투리 공부 시간을 설정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③ 공부일기를 쓰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습관, 패턴을 만들려고 크게 마음먹지만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실패하기 때문이다. 물이 끓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0℃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일정한 열이 가해져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부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좋은 공부 습관을 들여야만 스스로 공부하는 타입의 수험생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력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일기 쓰기를 추천한다. 하루 동안 자신이 공부한 시간과 과목, 공부한 단위명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20 오전 8:50~ 10:00 / 영어 / 완전자동사와 불완전자동사 / 문법 요점 정리, 확인 문제 풀이 7문제, 이러한 형식으로 자신이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순수 시간만을 1일 기준으로 적어 내려간다.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지게 되면 자신이 하루 얼마 정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지, 무슨 공부를 주로 하고 취약한 과목은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합격플래너 꼼꼼 활용법

❶ 합격의 큰 그림을 그려라(연간계획표 작성하기)

1년 단위의 연간계획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내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보통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해에 3번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그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정들은 연간계획표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면접 준비, 면접 시험일자 등도 꼼꼼히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된다. 다음은 자기가 목표로 한 시험까지 수험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산해서 기간 분배를 큰 틀에서 해야 한다. 가령 2개월 정도는 기본서 1회독과 기본 이론을 정리하겠다는지 기본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정하겠다는지 목표를 정한다. 그 뒤에 4개월 정도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심화 이론을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회독 수를 늘려나가겠다고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 Yearly PLAN

월	주요 일정
1	•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5과목) • 3개월 집중 자기 주도 학습
2	• 실전 문제 풀이(5과목) • 합격예측 모의고사
3	• 실전 문제 풀이(5과목) • 합격예측 모의고사
4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 막판 총정리! • 면접 준비
5	• 막판 총정리! •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6	• 막판 총정리! • 전범위 모의고사 풀이 or 파이널 시리즈로 정리 • 지방직 9급 필기시험/서울시 9급 필기시험
7	면접 스터디, 특강 등
8	•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1회독 •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9	• 기본이론 정리, 기본서 1회독 • 종합반 2개월 집중 코스
10	•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 집중적인 자기 주도 학습!
11	• 심화이론 정리/집중 정리 • 취약 과목 집중 정리!
12	• 취약 과목 집중 정리! • 회독 수 늘리기!

① 연간계획표 작성하기

② 과목별 학습계획을 잡아라(과목별 플랜 작성하기)

과목별 필수교재는 기본서 1권과 기출문제집 1권이 적당하다. 필요에 따라서 모의고사 등 실전테스트용 문제집을 한 권정도 더 구비해도 좋다. 과목별로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학습계획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2개월 동안 기본서를 1회독하기로 했다면 총 기본서 페이지를 공부일수로 나누어서 하루에 볼 분량을 대략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출문제를 병행하면서 기본 개념을 익힌 뒤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부족한 개념, 이론, 내용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시험은 ‘시험’을 위한 공부이지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제 출제유형에 적합한 공부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습목표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본서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하기, 최근 5개년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기,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하기 등 수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학습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 과목별 PLAN

과목	교재	학습계획	목표
국어	국어 기본서 1권	• 기본서 하루 25p씩 읽기	•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 주1회 기출문제 점검	•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영어	영어 기본서 1권	• 기본서 하루 42p씩 읽기	•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 주2회 기출문제 점검	•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영단어 Zip	• 영단어 하루 40개씩 읽기	• 모의고사 점수 70점 달성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1권	•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 주2회 기출문제 점검	•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학	행정학 기본서 1권	• 기본서 하루 27p씩 읽기	•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 주1회 기출문제 점검	•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 1권	• 기본서 하루 23p씩 읽기	• 첫 회독 2개월 내에 완성
	기출문제집 1권	• 주1회 기출문제 점검	• 최근 5개년 기출문제 완전 정복
			• 모의고사 점수 80점 달성

③ 월간 학습계획을 세워라(월간계획표 작성하기)

월간계획표에 주요 일정을 체크한다. 예를 들어 기본강의 수강 시작일, 모의고사 응시일, 스터디 일정 등 수험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번 달 완성할 과목을 정한다거나 이번 달에 성취할 목표를 기록한다. 영어문법 8일 완성, 영어어휘 26일 완성, 독해 5일 완성 등 월간 주요 목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달 계획을 잡으면 중점적으로 그 달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 MONTHLY PLAN ☀

Check the month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4 어휘 (~ Day 6) 영어문법 (2챕터)	5 어휘 (~ Day 8) 영어문법 (2챕터)	6 어휘 (~ Day 10) 영어문법 (2챕터)
11 어휘 (~ Day 18) 독해 (2챕터)	12 어휘 (~ Day 20) 독해 (2챕터)	13 어휘 (~ Day 22) 독해 (2챕터)
18 어휘 (~ Day 30)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19 어휘 (~ Day 32)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0 어휘 (~ Day 34) 이디엄·생활영어 (1챕터)
25 어휘 (~ Day 46)	26 어휘 (~ Day 50)	27 어휘 (~ Day 54)

Monthly Point

- 영어문법 8일 완성!
- 영어어휘 25일 완성!
- 독해 5일 완성
- 이디엄·생활영어 4일 완성
- ⇒ 영어기본서 1회독 완성!!

③ 월간계획표 작성하기

④ 주간 학습계획을 잡고 실천 여부를 체크하라(주간플래너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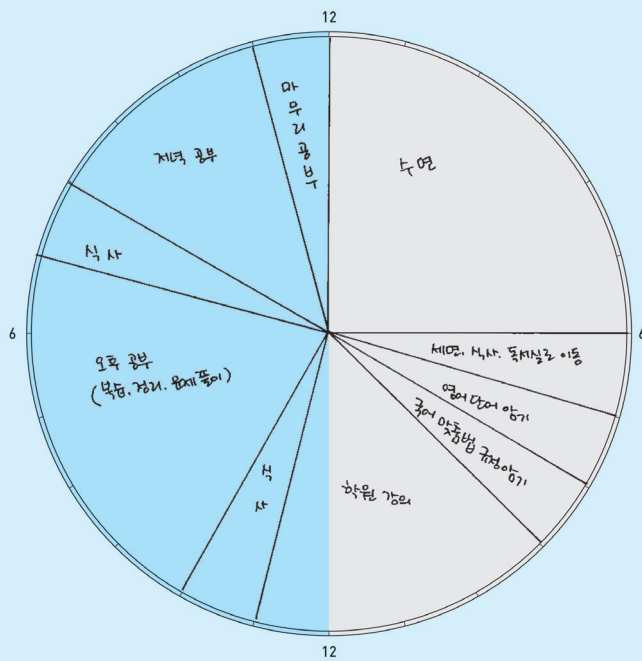
주간플래너의 가장 큰 장점은 계획했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일별로 체크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고 해당 일자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실제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해당 일자별로 기록하는데 잘했으면 브이표(V)로 체크하고 목표치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세모, 아예 실천하지 못했으면 엑스표(X)로 기록한다. 계획했던 것과 실제로 한 일 사이를 자세히 보면 설정한 계획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공부 패턴을 잃은 것인지,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한 일	
☐ 영어어휘 1일 Day 2씩 암기	☒
☐ 영어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 기출문제 단원별로 점검하고 오답노트 작성하기	☒
☐	☐
MON (월) / 4	
영어어휘 암기(~Day 6)	☒
영어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TUE (화) / 5	
영어어휘 암기(~Day 8)	☒
영어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WED (수) / 6	
영어어휘 암기(~Day 10)	☒
영어문법 2챕터씩 공부(기본서)	☒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 작성	☒
	☐

⑤ 일일 생활계획표를 만들어라(일간 학습계획표 작성하기)

일일 생활계획표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이고 단기적인 공부습관을 형성하는 수단이다. 수험생의 하루 생활은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사, 수면, 개인위생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험생들 중에는 학원 강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은 3~4시간 정도로 책정하고 이를 제외한 공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오전, 오후, 저녁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한 타임마다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영어 단어 암기나 국어 맞춤법 규정 암기 등을 정해놓고 매일 학습하는 것이 좋으며 오후 공부 시간에는 학원 강의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내용을 복습하고 혼자 정리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면 효율적일 것이다. 오후에는 공부량이 많이 확보되는 시간대이므로 최소 4시간 이상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선택과목이나 취약과목 등을 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 DAILY PLAN •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wasted time.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이다.

+ 자세히 보기 합격 플래너 똑똑하게 사용하기

▣ 공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자.

예를 들어 한국사 기본서를 읽고 내용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플래너에 '한국사 기본서 읽기'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기본서 20~51p 까지 읽고 중요 내용 정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오늘 자신이 목표로 했던 학습 계획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피드백도 용이하다.

▣ 시간 계획을 너무 촘촘히 하지 말자.

처음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원대한 포부와 의욕으로 빈틈없이 플래너를 작성하는 수험생들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제대로 지키기도 힘들뿐더러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만 아니라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을 상실하기 쉽다. 소소한 계획이라도 실천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학습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다만 시험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평소보다 학습 분량을 강도 높게 설정해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힘이 드는가?
하지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 카를레스 푸올 -

”

5. 합격을 부르는 노트정리법

(1) 왜, 노트정리인가?

합격수기를 읽다보면 한국사와 같은 과목에서 자신만의 연도별 발생 사건 노트를 정리했다는 수험생이나 수학문제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시험 1주일 전에는 오답노트와 핵심정리만 반복적으로 보았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노트가 자신의 합격을 가능하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는 글귀가 참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노트정리는 왜 해야 할까?

“

노트정리는 그날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 정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고 노트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것은, 학습내용을 잘 분류된 서랍 칸에 정리하듯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정리와 반복, 장기기억으로의 전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진짜 자기 것으로 소화하게 해 주는 것이다.

”

간혹 수험생 중에는 기본서를 열심히 읽고도 무엇을 공부했는지 당장 설명할 수 없거나 타인에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이것은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무작정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도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험생에 따라서는 노트정리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필기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노트정리는 잘 정돈된, 예쁜 글씨체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트가 아니다.

“

강의 시간에 강사가 말한 부분을 복기 시켜 줄 있는 노트, 핵심어를 보면 내용이 떠오르는 노트,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노트’를 의미하는 것이다.

”

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합격의 길로 다가가는 효과 만점 노트 정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노트필기 준비물

① 노트

유선노트, 무선노트, 2분할 노트, 오답노트, 3공노트, 5공 철제 링 바인더 노트 등

▣ 쓰는 목적, 과목에 따라 적절한 노트를 선택하라.

한국사, 사회, 행정학 등은 필기 내용이 많으므로 두꺼운 스프링 노트를 쓰는 것이 좋다. 중간중간 필기 내용을 끼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지면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기에는 3공 노트나 5공 철

제 링 바인더 노트가 좋다. 이때 반드시 수업일자, 과목, 단원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취합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수학이나 과학노트는 2분할 노트가 적당하다. 개념, 예제를 나눠 쓸 수도 있고 문제, 풀이과정 등을 분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오답노트 전용으로 나온 노트도 있으니 그것을 선택해도 된다.

② 필기구

검정색 펜, 파란색 펜, 빨간색 펜, 형광펜, 컴퓨터용 사인펜 등

▣ 기본색은 세 가지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트필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관찰해보면 기본적으로 3색(검정, 빨강, 파랑)을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색은 기본적인 내용이나 일반적인 것을 적을 때 사용하고, 파랑색은 추가내용이나 참고·부연설명 등을 적을 때 사용한다. 빨간색은 중요 내용, 핵심, 시험에 꼭 나온다고 강의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한다.

③ 기타

포스트-잇, 플래그, 자, 수정테이프, 지우개 등

▣ 기본서 단권화를 하고자 한다면 포스트-잇이 필수!

기본서에 자신만의 필기를 첨가하여 단권화 하고자 하는 수험생이라면 포스트-잇 활용이 효과적이다. 강의 시간 중에 설명한 보충 개념이나 심화 설명을 따로 적어 해당 단원이나 내용 옆에 붙여 두고 보다가 완전히 숙지가 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떼어 내면 된다. 포스트-잇은 용도에 따라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실전 노트정리법

① 노트정리의 표준~ 코넬 노트 정리법

노트정리법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이 코넬 대학교에서 고안한 코넬 노트정리법이다.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학노트형태로, 왼쪽에 여백을 두고 수직의 구분선이 그어져 있다.

○ 코넬 노트 보기

제목 ~ 날짜, 단원, 공부시간을 기록	
Cue(단서) ↪ 핵심어를 적는 칸	Notes(내용정리) ↪ 핵심어의 세부 내용을 적는 칸
Summary ~ 핵심만 정리하여 3~4줄로 요약 (요약)	

□ 제목 영역

학습날짜, 단원명, 학습목표, 공부시간 등을 기록한다.

□ 내용정리 영역

강의 시간에 강사가 설명한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한다. 여백은 충분히 두고, 번호 붙이기와 들여쓰기로 개념을 체계화한다. 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지 말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구성한다. 나만의 기호 사용, 중요한 내용이나 강조점 등은 색펜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준다.

+ 자세히 보기 나만의 기호 예

=(같다), ≠(같지 않다), &(그리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vs.(~대), cf.(비교), def(정의), ↑(상승, 증가) 등

□ 단서 영역

필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단어를 선택한다. 내용정리 영역을 가리고 핵심단어를 보면서 스스로 필기 내용을 설명해보는 것도 좋다.

+ 자세히 보기 핵심어 뽑는 요령

1. 수업시간에 처음 제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
2.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거나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
3. 선생님이 강조하자면, 요약하면, 핵심은~, 결론적으로~ 등 특히 강조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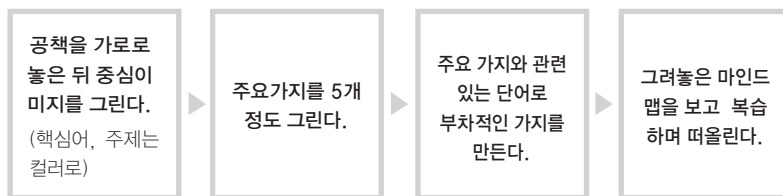
□ 요약 영역

필기 내용을 3~4줄로 요약해서 적는다. 일종의 핵심 정리인 것이다. 기억의 장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습이듯 노트정리의 가장 중요한 점도 반복이다. 반복하여 노트정리로 복습하면서 노트필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필기하지 말고 문제집, 요약집 등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취합하여 노트를 보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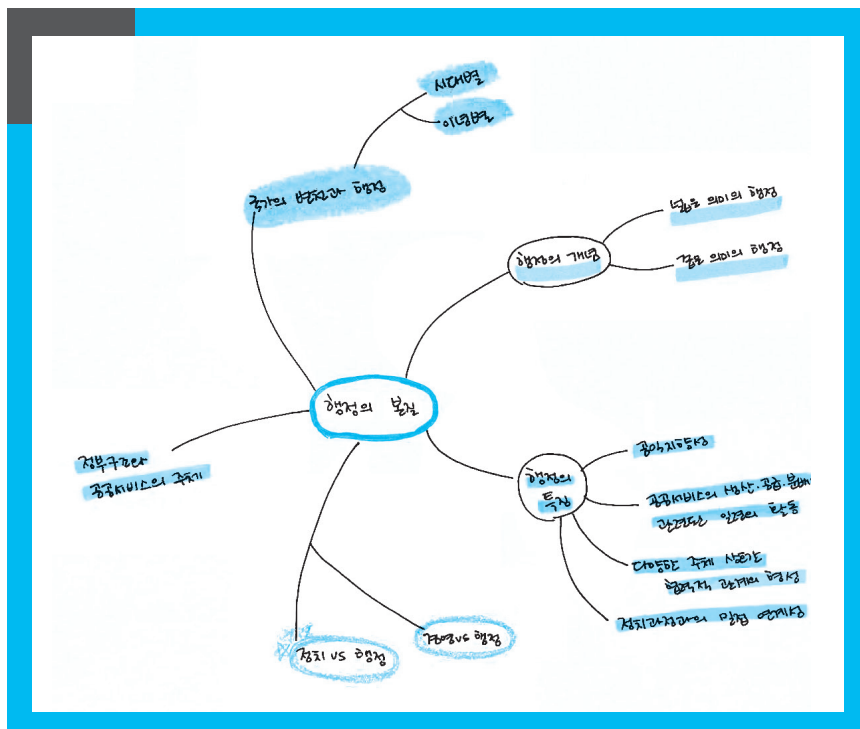
② 뇌를 깨우는 마인드맵

하나의 주제어(핵심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여러 개의 선을 그려 입체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노트필기법이다. 핵심어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시각적 인지력이 극대화되어 뇌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성방법



○ 마인드맵 작성 실제



③ 약점을 보완하는 오답노트 정리법

세로선을 중앙에 그어 T형 노트로 만들면 오답노트로 사용하기에 좋은 형태가 된다. 수학이나 물리 문제 풀이과정을 비교해서 정리하는 형태나 오답 내용을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하기 좋다.

○ 오답노트 공간 사용법

기본 개념	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등
핵심내용과 개념원리	기본개념에 관련된 그림, 도표 기록

단원명	문제유형, 키워드
틀린 문제: 수기 또는 복사해서 붙이기	풀이과정과 정답 틀린 이유

○ 오답노트 작성방법

오답노트는 주요 개념과 기본서 내용이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풀고 만드는 것이 좋다. 노트 상단에 단원명, 테마를 적고 핵심 키워드나 문제유형을 우측상단에 표시한다. 너무 많이 틀렸을 때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 이해가 잘 되지 문제를 선별하여 옮겨 적어라(때로는 문제 부분만 복사해도 된다). 문제풀이와 답은 분할하여 적어야 답부분을 가리고 다시 문제를 풀어볼 때 편리하다. 코멘트 등에 틀린 이유를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제를 잘못 읽었다든지 개념을 혼동했다든지, 계산 시 실수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적어두면 스스로 주의해서 풀게 되므로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오답노트는 반드시 문제를 풀 날, 시험 본 날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고 바로 작성하면 맞췄지만 헛갈렸던 문제나 시험에서 특히 어려웠던 문제 등이 생생히 기억나기 때문이다. 잊지 말자. 여러분이 문제집을 덮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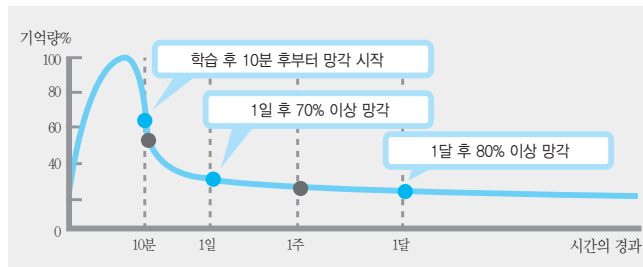
기본서 들여다보기(효과만점 기본서 활용법)

(1) 기본서가 양단 구성인 이유?

시중의 기본서를 보면 페이지의 4분의 1가량의 공간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양쪽을 펼쳐놓고 보면 좌, 우에 각각 4~5cm 정도의 여백이 있는데 이런 구성 방식을 양단구성이라고 한다. 이런 양단에는 보통 참조, 용어, 핵심정리, 학습목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

수험생들에게 이 공간을 주는 이유는 필기 공간으로 참조하고 핵심어, 부연 내용, 해당 부분에서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등을 적게끔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서+서브노트를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똑똑한 수험생이라면 이 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비결



▶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10분 후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되고, 다시 하루 후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 복습하면 한 달 동안, 한 달 후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기억화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복습의 횟수를 늘릴수록 복습할 양과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조금씩 주기적(10분→하루→1주일→한 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2) 양단 구성 활용 사례

선우한국사

* 전세제도 (전세)의
단점 - 근세 경제정책 변화
→ 세금 부담을 피지배자등
입장에서 큰 부담.

* 정치영역에서 전세로
① 비변사 기능 (전세) → 의정부, 6조 기능 (전세) 양호 (전세)
② 국사 이관 (전세) 전관제, 기능 (전세)

* 지변사(知邊使) 재상
조선에서는 정부와 군무를 구
분하여, 정부는 민정이나 군정
모두 의정부에서 맡아 처리하
였다. 그러나 성종 때 여진족의
노략질에 대처하기 위해 종2품
이상의 변방에 밝은 무관인 지
변사 재상도 참여시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

전세정책의 원리유니가

4 (부세) 제도의 폐단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부세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서 다
가에 대해서 전세·공납·역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 그
징수 과정에 있어서도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어 농민들
대처 → 양정법, 대동법, 균역법

02 정치 구조의 변화

2013, 법원직 | 2012, 지

1 비변사의 설치

- (1) 임시 기구 : 중종(1510)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의 군무 협의 기구이다.
- (2) 상설 기구화 :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

2 비변사의 기능 강화

16세기 중엽 이후 드러난 지배 체제의 모순 등 사회 변
등의 개혁을 통해 대처하려고 노력하였다. 비변사의 기
질서를 재정비하고자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 (1) 기능 확대 :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문무 고위 관리
물론 외교·재정·사회·인사 문제 등까지 처리하는 기
- (2) 구성원 : 전·현직 정승, 5조 판서(공조 제외)와 참판,
제학 등 국가의 중요 관원들로 확대되었다.

3 비변사 확대의 영향

왕권 약화 및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유
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19세기에는
세도 정치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비변사의 기능 강화는 조선의 통치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⑤ 비변사등록 |
록한 책으로, 167
까지의 등록이 남

4 비변사의 폐지

고종 2년 대원군에 의해 비변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
의정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합격수기

다들 열심히 한 만큼 꼭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을 믿으시고, 스스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다들 열심히 한 만큼 꼭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교정직) 최종합격자 이ㅇ영

공직자가 되기 전 나의 직업은?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24살 때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학연수를 다니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만만치 않은 취업문턱에 졸업반이 다 되어서야 뒤늦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찍 자리를 잡은 친구들 사이에서 하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뒤늦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제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고 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제 결정을 믿고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박문각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가 특히 취약했던 과목이 바로 행정학이었습니다. 특히나 넓은 공부범위와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행정학 과목 특성상 제일 성적이 오르지 않던 과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다른 과목처럼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습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 수업도 들어보고 행정학 공부시간을 늘려 독학해보기도 하였으나 모두 이렇다 싶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1년이나 시간을 허비한 후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도 보니 다들 한결같이 ‘행정학은 신용한’이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신용한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를 박문각공무원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기간 및 과목별 학습 방법

저의 총 수험기간은 1년하고 8개월이었습니다. 국가직 시험 4개월 전에는 잠이 오기 쉬운 오전에 인강으로 빠르게 회독을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취약한 과목위주로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기본서로 확인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3개월 전, 전 과목을 인강으로 빠르게 회독을 마친 후에는 제가 취약한 과목 2개만 문제 풀이 해설강의를 잠이 오거나 독학하다가 환기가 필요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독학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는 전 달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면서 확인하고, 전 과목을 동형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2개월 전, 듣고 있던 인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동형모의고사를 과목별로 매일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는 기본서와 필기노트로 확인하고 여러 번 계속 틀리는 문제들은 따로 적어놓고 잊지 않게 암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1개월 전에도 역시 동형모의고사를 매일 계속 풀면서 저를 새로운 문제에 최대한 많이 노출되도록 하였고, 새로 알게 된 것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익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틀린 문제는 다시 기본서를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험 1개월 전 저는 문제를 소거법으로 푸는 연습도 하고, 시간안배 연습도 하고, 최대한 실전처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에서 인강의 비중을 줄여 나갔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학원을 4개월 다닌 이후로는 몇 개월간 하루 종일 인강만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꾸준히 들었던 인강이 제가 독학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혼자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게 되었고, 당시 교수님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기쁨에 기억에도 더 잘 남고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필기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각 과목마다 있는 필기노트를 활용

하여 그곳에 제가 알게 된 점, 한 번 더 혹은 여러 번 주의해서 봐야 할 것들을 표시하고 적는 식으로 저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국어

국어는 저의 전략과목이었습니다. 한자에 많이 익숙해서 따로 한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고른 기본 수업을 2번 돌려듣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았던 것이 시험 때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어는 기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제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 제일 점수가 안 오른 과목이었습니다. 결국 중간에 목표를 이 점수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암기와목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요 문법사항을 항상 까먹지 않도록 문제로 관리하고, 단어 공부는 모르는 것이 나와도 감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소거법으로 문제풀기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독해도 하루에 20문제씩 시간 맞춰 푸는 것으로 현재의 감을 잃지 않는 수준으로만 공부하였습니다.

행정학

행정학은 저의 최고 취약과목이었습니다. 한국사처럼 처음 공부해보는 과목이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 휘발성이 너무 강한 과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한 과목이었습니다. 행정학도 일 년 넘게 점수가 만들어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신용한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학 점수가 오른 것은 물론, 기복이 심하던 것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신용한 교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과목 자체가 워낙 양이 많고, 너무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용한 교수님 믿고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고등학교 때 사회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수월했습니다. 학원에서 나눠주었던 사회 요약본을 노트로 만들어 그걸로 공부했습니다. 동형문제집을 사서 틀린 문제를 정말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경제파트에 좀 취약했기 때문에 외워서 풀 수 있는 나머지 사회문화, 법과 정치 파트를 정말 열심히 외우고 공부했습니다.

나만의 공부 스타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에 독서실에 도착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면 집에 가서 12시 전에 자는 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저한테 맞았기 때문에 스터디 같은 것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완전히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가까운 공무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에 관해 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게 맞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듣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예습을 하면 좋지만 저는 따로 예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복습을 정말 꼼꼼하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본서를 완벽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기본서를 회독한 후에는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최대한 많은 유형의 문제, 새롭고 낯선 문제를 푼 후 그것을 복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험을 몇 달 남겨 두고는 계속 문제풀이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할 때 지루하지도 않고, 늘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였고, 한번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복습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틀린 문제를 복습 할 때는 기본서에서 그 파트를 찾아 다시 공부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계속 틀리면 몇 번이고 상관없이 계속 그 파트를 찾아 복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저의 약점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지 알게 되어 처음엔 공부양이 많은 것 같아도 하다보면 오히려 공부할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적관리 노하우

성적관리 노하우는 역시 제가 취약한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목이 취약한지, 자신 있는 과목에서라도 그 안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약한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최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종합격 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기뻐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또 일정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스스로 오늘도 해냈다는 소소한 성취감을 많이 느끼려고 했습니다. 수험생을 제 직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을 지나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제 기분전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 집중이 안 될 때는 나가서 걷고, 자전거도 탔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급의 경우 선택과목 만족도

저는 선택과목으로 행정학과 사회를 했습니다. 국가직에서 행정학 80(63.40), 사회 80(61.23)점으로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원한 직렬이 행정학과 사회로 면접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었기에 최종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조금 불안했습니다.

생활관리법

아침에는 보통 7시에 기상했습니다. 씻고 밥을 먹고 독서실에 도착하여 공부를 시작하면 9시. 그때부터 밤 열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오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12시 되기 전에 잠을 잤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점심을 많이 먹으면 오후에 또 졸리기 때문에 식사는 빵과 우유로 가볍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든 동형 문제든 가리지 않고 모두 풀

었습니다. 과목별로 하루에 몇 십 문제씩 풀어놓고, 전날 풀었던 문제들 중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습니다.

가벼운 저녁식사 후에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 오답을 했습니다. 오늘 풀 문제들은 오답을 한 후 다음 날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답을 모두 지웠습니다. 남은 시간동안은 어제 틀렸던 문제들 중 오늘 풀었는데 또 틀린 문제들을 기본서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문각공무원이 좋았던 점

박문각공무원온라인은 동영상강의 기술적인 면으로나 학생들의 질문을 처리하는 속도나 자세 등 서비스 면에서 모두 만족이었습니다. 박문각공무원온라인 교수님들의 강의력은 이미 다른 학생들의 강의 평가와 후기를 통해 검증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후기를 씀으로써 앞으로 공부하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강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믿고 선택한 교수님의 강의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정말 어느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합격점수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합격 비법

저는 특별한 합격 비법이 없는 것이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원래 성격이 할 일을 만들어내서 하는 성격이라 이런 점은 공부할 때 꼭 버리자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최대한 단순하게, 적지만 효율적으로'라는 공부 방법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방법이 저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은 책으로 가볍게 가자고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동형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돌렸습니다. 동형모의고사도 3번씩 본 후에야 새로운 동형모의고사 문제집을 샀습니다. 기출문제집은 틀린 문제 위주로 계속 돌리고, 기본서도 개정된 것만 새로 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면접 시험 합격 노하우

면접 준비 방법

저는 다니던 지역학원에서 진행하던 면접 코칭 수업을 들었습니다. 면접 전까지 2시간씩 5번을 진행했고, 그 곳에서 만난 분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근 3주간의 시간동안 매일 만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질문에 대해 모범답안을 만들어 서로 돌아가면서 외워보고, 서로 역할 바뀌가면서 실제 40분간 면접을 보기도 하고, 20분 동안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기술서도 작성해 보는 등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찾아본 자료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더 좋겠다는 피드백도 서로 해주고 면접 도중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 같은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하는 등 서로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시험장 분위기 및 진행 절차

저는 오후 면접이었기 때문에 일산 킨텍스로 11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여 좀 기다리니 벽면에 크게 면접 볼 사람들의 이름과 수험번호, 몇 조의 몇 번째 순서 같은 것을 적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앞에서 손수 본인의 명찰을 작성하여 옷깃에 답니다. 조금 기다리면 면접 대기장의 문이 열리고 줄 서서 들어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자분의 설명을 듣고 바로 20분 동안 자기기술서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하면 바로 걷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 바로 각 조의 1번 분들이 이동하여 면접을 보러갑니다. 저는 2번이었기 때문에 1번 분들이 면접을 볼 동안 제가 준비해간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각 조의 2번 분들과 동시에 일어나 5분 스피치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0분 후 5분 스피치 발표 준비가 끝나면 면접장으로 이동합니다. 면접장으로 들어가 그 앞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1번 면접이 끝나면 들어가 면접을 봅니다. 들어가자마

자 5분 스피치 발표를 하고 그와 관련된 후속 질문을 몇 가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기술서에 기초한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 떨려서 목소리까지 떨리고, 같은 말만 계속했는데 면접관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긴장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점점 긴장이 풀리자 제 생각을 제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편안하게 이런 저런 대화 나누는 느낌으로 면접을 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면접 문제

5분 스피치 발표 과제는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공직가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치되는 가치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는 ‘재산공개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기준으로 나눠야 하겠느냐?’, ‘왜 대치되는 것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자기기술서 1번 문제는 하던 일에 대해 직원들을 설득시켜 일을 수행한 경험(정확히 기억이 안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대학교 때 조별 발표에 관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후속 질문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조원들을 설득했는지, 설득할 때 어떤 근거를 들어 설득했는지, 결과는 좋았는지, 설득하는 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기술서 2번 문제는 제 직렬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현재 교도소 수용 원칙은 독거수용인데,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로 혼거수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도소 내의 수용자 하나가 독거수용을 원하며 난동을 피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직렬 관련된 기본 상식들을 줄줄이 물어보셨습니다. 교도소 내의 전반적인 시설(?) 같은 것도 물어보시고, 귀휴와 관련된 질문도 하셨습니다. 상사가 내 맘에 들지 않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릴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어보시는 등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

면접 볼 때 저는 선택과목으로 교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물론 면접 준비할 때 기본 상식 같은 것들은 공부해왔지만, 실제 받은 질문 중에 교정학과 관련한 질문 중 전문적인 것들은 제가 답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이 직렬에 대해 관심이 높은지,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다른 생각 마시고 합격이라는 목표만 딱 정해놓고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그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수험기간 내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혼자 갖은 생각에 괴로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잡생각을 안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간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그럴 땐 최대한 합격 후의 생각들, 부모님 생각, 계속 안 외워지는 영단어나 한자, 한국사, 행정학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열심히 한 만큼 꼭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도 없다.

- 조지 버나드 쇼 -

”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을 믿시고,
스스로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세무직) 최종합격자 류○하

공직자가 되기 전 나의 직업은?

26살 취준생이었습니다. 기업 입사를 위해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기업 입사해서 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란 생각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 등등 여러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문각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머리 아픈 것은 딱 질색이라 박문각과 A학원 두 곳에만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맨 처음에 A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직원분이 답변도 너무 건성으로 하시고, 빈정대는 말투로 말씀하셔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인지 싸우러 온 것인지...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졌습니다. 다음에는 박문각으로 갔는데 A학원 직원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문각이 상대적으로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박문각에서 공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고, 당시 주변인들도 박문각을 추천해서 박문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기간 및 과목별 공부 방법

저는 2년 6개월 동안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스파르타 종합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노량진과 집을 오가며 공부했는데, 이 방법은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어 나중에는 병이 나서 종합반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다보니 내용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걸

국 첫 공무원 시험(2016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음(2017년 시험목표)에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인강을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2016년 7월에는 행정학만 다시 수강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 내용이 낯설어 제대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7,8월에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9·10월에는 국어 이론과 영어문법 정리, 11·12월에는 사회 이론과 한국사 이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 때 진도는 교수님께서 OT때 올려주신 진도표를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월화수 국어 및 행정학, 목금토 영어 및 행정학, 일요일은 복습 그리고 휴식”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어영역 같은 경우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 9·10월에 국어, 영어문법을 정리한 이후 11·12월에 기출문제집을 구해 인강을 수강하지 않고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아침(7시 30분)부터 저녁(8시 30분)까지는 한국사 및 사회를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8시 45분부터 11시까지). 국어 경우는 하루에 각 파트 5문제씩 (총 약 30문제 정도) 풀었습니다. 영어는 기출문제집 각 파트 10문제씩 풀고, 어려운 지문 3개를 선정해 꼼꼼하게 해석 및 단어 정리를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활용 및 공부 방법

저의 경우는 우선 인강을 진도표대로 1일차 강의(강의 4개)를 1.5배속을 먼저 듣고(약 2시간 30분 소요), 복습은 4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심화이론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한 과목당 3일 동안 1주 진도가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두 과목을 각각 3일씩 할애해 6일 동안 인강 및 복습을 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국어, 영어 암기 방법

국어와 영어의 경우 암기할 것이라 하면 어휘가 되겠습니다. 국어는 한자, 외래어, 표준어, 고유어 등등 그리고 영어는 단어가 양이 굉장히 많고 방대해서 자주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암기장을 만들어서 이동시간이나 밥 먹은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

국어는 한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쪽을 'DAY1'이라고 해서 하루 치 분량으로 설정해 하루 암기해야 할 분량을 한자 15개·한자성어 10개로 정해서, 왼쪽에는 한자만, 오른쪽에는 음과 뜻을 적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는 한자만 보면서 음과 뜻을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로 무한 반복했습니다. 외래어와 표준어의 경우는 A4 용지를 4 칸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틀린 표현, 오른쪽에는 옳은 표현을 써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보면서, 틀린 부분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단어는 처음 박문각공무원 노량진(남부) 학원에 갔을 때 학원에서 나눠준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단어집을 좀 더 콤팩트하게 만들고 싶어서 당시 가지고 있던 가로로 긴 사이즈의 3M에서 나온 포스트잇을 풀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영단어 오른쪽에는 뜻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큰 집게로 고정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한 손에 들어올 만한 크기로 휴대하기가 편리해 주말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들고 가기가 편해 굉장히 잘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제집에서 만나는 모르는 단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추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단어에 익숙해지는 단계를 거쳐 기출문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단어의 경우 외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중요한 것은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단어를 외우시고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니면 평소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국어

첫 두 달은 문법 및 독해 이론 정리, 다음 두 달은 혼자 기출문제 풀이, 나머지는 약점체크를 풀면서 틀린 부분은 이론서로 돌아가 정리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영어

저의 전략과목은 영어였습니다. 영어는 수험 전에 토익 945점, 토스 7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선은 공무원 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문법 강의만 듣고, 독해 및 단어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한국사

한국사는 선우빈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선우빈 교수님의 심화이론 수업은 정말 최고입니다. 한 시간 내외로 강의시간이 짧고, 그 안에 내용도 알차게 담겨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또한 교재도 가독성이 좋아서 공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11월쯤 제공되는 ‘간추린 선우한국사’는 정말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기본서를 빠짐없이 요약해 놓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회독하기에 좋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덕을 본 강의는 지난 1년 시험을 정리한 ‘2017년 최신 기출문제 총정리 특강’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경향을 보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학

행정학은 신용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심화이론을 2배속해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인강을 듣다보니 복습도 인강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화이론과 후에 개설되는 동형모의고사 인강만 들었습니다. 심화이론을 들으면서 이론과 기출문제를 병행하였고, 동형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자가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만의 공부 스타일

다이어리를 사서 월간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만 앞서서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는 바람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서 각 과목당 공부하는 시간을 쪼갰니다. 그런 다음 조금은 여유 있게 시간표를 짜서 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계획을 짰습니다. 예를 들면, 개괄적으로 두 달 안에 행정학 심화 이론 완강이란 목표를 세우고, 시간 계산을 해봅니다. 그럼 하루 강의 4개 정도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선 강의 4개 듣기를 기본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강의 한 개 정도를 빼거나 더하는 식으로 시간표를 짜서 목표를 달성하는 식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저는 연습은 하지 않고 복습을 위주로 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 다음 머릿속으로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대강 큰 틀로 나눠서 생각해봅니다. 그런 다음 책을 읽으면 교수님께서 강의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루 4시간 정도로 했습니다.

성적관리 노하우

저는 학원 모의고사를 치러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직 시험이 다가오기 4달 전부터는 개인적으로 과목별로 동형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시간을 재서 풀고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의고사 점수 때문에 굉장히 일희일비했던 터라 조언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희일비하기는 했어도 문제집을 끝까지 풀고,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생활관리법

아침 6시 20분에 기상 1시간 이내로 외출준비 및 도서관으로 이동을 마치고, 7시 30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30~12:00	아침 공부
12:00~13:00	점심 및 산책
13:10~5:00	오후 공부 (중간 15분 정도 낮잠)
5:00~6:00	저녁 및 산책
6:00~9:00	저녁 공부
	20분 휴식 (자유시간)
9:20~11:30	밤공부
12:30	취침

박문각공무원이 좋았던 점

우선 저는 박문각온라인이 좋았던 점이 우수한 교수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각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박문각을 택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수업도 길지 않고 거의 1시간 내외로 간략하게 제공돼서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교수님들의 우수한 강의입니다.

나만의 합격 비법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공부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수험생활이 2년 6개월로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합격비법을 굳이 찾아낸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망쳤을 때는 ‘공부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라며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시험을 망쳤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국가직 시험은 1점차로 떨어져 아쉽기도 아쉬웠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합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전보다는 조금은 힘을 풀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저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극히 평범한 저도 해냈으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수험생분들은 더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험생활 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당시 나의 최선이었고, 결코 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디 자신을 믿으시고, 스스로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시험 합격 노하우

면접 준비 방법

저는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같은 직렬을 지원한 분과 함께 동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우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약 1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들이 면접에서 가서 정말 많은 힘을 발휘해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장 분위기 및 진행 절차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에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전공 질문을 준비하느라 대기실에 앉아서 책만 보기 바빴거든요. 진행절차는 우선 시험장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수험번호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 명찰을 직접 만들고,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면접요령 안내를 받고, 자기 기술서를 작성한 뒤, 본인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오면 5분 발표지를 작성하러 이동합니다. 10분 동안 대본(?)을 작성하고, 자기 면접장 앞에 대기하다가 종이 올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면접 문제 및 답변

저는 5분 발표를 할 때, 제가 먼저 세무서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덕분에 봉사활동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습시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배운 점, 느낀 점 등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운이 좋아 압박질문이 없었고, 오히려 덕담을 많이 듣다가 나왔습시다.

주의 사항

너무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씩 자기주장만 하게끔(?) 면접관님들께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저도 이번 면접에서 자주 겪었습니다) 그 때 분위기를 잘 캐치해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어렵거나 모르는 경우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후 숙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앞으로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2018년 국가직 9급 공무원(사회복지직) 최종합격자 최○아

공직자가 되기 직전 나의 직업은?

대학을 늦게 졸업한 편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 당시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망설였지만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점이 끌려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당시 빠르게 합격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 가장 부담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문각공무원을 선택한 이유

박문각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사회복지직 선택과목에 대한 공부량이 좀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어대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 강의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저렴했고, 환급이 된다는 점에서 끌려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습기간 및 학습 방법

- ▣ 기간: 2016년 12월 ~ 2018년 5월 (약 1년 6개월)
- ▣ 학습방법

국어

- 온라인수강 40% + 개인공부시간 60% 비중
- 처음 기본강의를 들을 때는 온라인 수강의 비중이 좀 더 높았지만, 문법 등의 기본 강의를 1회독 한 이후에는 개인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 비문학 + 문학의 경우 수능 공부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었고, 문법과 어휘, 한자 쪽에 시간을 좀 더 투자했습니다.

영어

- 온라인수강 50% + 개인공부시간 50% 비중
- 하프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 어휘의 경우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하프모의고사를 통한 어휘만 공부했습니다.
- 문법 강의는 따로 들었고, 독해의 경우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설을 들으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사

- 온라인수강 70% + 개인공부시간 30% 비중
- 한국사의 경우 혼자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를 듣는 편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다양한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 온라인수강 70% + 개인공부시간 30% 비중
- 사회복지 역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교수님께서 해주는 얘기를 듣는 편이 기억에 더 오래남아서, 기본강의 - 모의고사 등 다양한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학

- 온라인수강 20% + 개인공부시간 80% 비중
- 전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취약한 부분의 개념만 우선적으로 들었고,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잘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 수학의 경우 외워야 하는 공식 등 중요한 공식들만 모아서 암기노트를 만들었고,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시 어려웠던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추가시험에서 1점차로 탈락을 했을 때 슬럼프가 가장 크게 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점수가 다른 지역에서는 붙을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슬럼프가 좀 더 크게 찾아왔었습니다. 슬럼프 때 공부에서 손을 놓았었고 약 1개월 정도 놀았다가, 새로 박문각 강의를 신청하게 되면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공부 방식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도 다른 곳에서 박문각으로 옮겨왔고, 새로운 교수님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내용의 이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겨워지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고, 그때는 다른 교수님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슬럼프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국어

어휘, 문법 등만을 강의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모의고사 등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자 외우는 것에 시간투자를 했습니다.

영어

하프모의고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75점 정도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어휘 부분에는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고, 문법과 독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사

노범석 교수님께서 문제를 풀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언급해주는 방식이 좋았기 때문에, 먼저 문제를 풀고 교수님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의 경우 손으로 그 부분을 안 보고 써보는 방식을 사용해서 암기했습니다.

사회복지

어대훈 교수님의 기본강의 + 모의고사를 따라갔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따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기본강의와 모의고사만을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수학

기출문제를 먼저 다 풀었고,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체크를 했습니다.

나만의 공부 스타일

일정관리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날그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인 공부시간을 꼭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에 집중을 했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맞힌 부분은 넘어가고,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성적관리 노하우

이미 풀어본 기출문제이더라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간을 맞춰두고 푸는 연습을 자주했습니다. 시험보기 한 달 전 부터는 주로 모의고사만 반복적으로 풀면서 시험대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새로운 교수님의 새로운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9급의 경우 선택과목 만족도

사회복지 (원점수 80 / 조정점수 61.69)

사회복지 과목의 경우 전공이 사회복지라면 추천드립니다. 공부시간 대비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고, 전공자라면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해서 공부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과목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직렬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원점수 75 / 조정점수 56.16)

수학의 경우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에 비해 조정점수가 유독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 최소 15분 ~25분이 걸리기 때문에 시험 시간 분배에 있어서도 유리한 편은 아닙니다. 단, 수학의 경우 한번 익힌 부분에 관해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수학 과목에 대해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법

- 기상시간 : 오전 8시 / 취침시간 : 오후 11시30분
- 집 또는 도서관
(집에서 주로 공부하고, 공부가 하기 싫은 날은 도서관을 가는 등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 제 공부 스타일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과목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의 목표를 “국어”로 잡으면 그 한 과목의 강의를 마스터하기 위해 며칠이 필요한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5과목을 돌렸고, 그렇게 어느 정도 공부가 마무리된 시험 시작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부분 위주로 다시 공부하는 방식을 주로 했습니다.

- 필수과목의 기본강의를 우선적으로 공부했고, 제가 선택한 과목인 사회복지와 수학의 경우 이미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본강의를 빠르게 수강한 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었습니다.
-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고,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박문각공무원이 좋았던 점

다른 학원과 비교했을 때 저렴했고,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끌렸습니다. 또한 제가 듣고 싶었던 사회복지 “어대훈” 교수님께서 계셔서 선택했습니다.

나만의 합격 비법

제 합격 비법은 제가 취약했던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부를 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부 방식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메시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보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충실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찾아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면접 시험 합격 노하우

면접 준비 방법

강의랑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시청 등의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키워드를 생각해보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면접 시험장 분위기 및 진행 절차

1. 본인확인
2. 사전조사서 작성 (약 15분~20분)
 - 질문의 경우, 충분히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고, 찬성 반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 면접에서는 사전조사서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3. 20분을 딱 채워서 면접이 진행되었고, 분위기는 부드럽고, 상냥한 분위기였습니다.

면접문제

1. 자기소개
2. 지원 동기
3. 공직관에 대한 질문
4. 스트레스 해소 방안
5. 경험에 대한 질문
6. 지원 지역의 복지에 대한 질문
 - 특별하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고, 예상 질문 위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 꼬리 질문을 하시기는 했지만, 압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

긴장하지 않고, 준비해간 말을 다하기 위해서는 글로 써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답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운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다.

- 퍼시 비시 셸리 -

”

D-1 시험 전일 막판 정리법!

(1) 시험 전날에는 5과목(9급 수험생 기준)을 빠르게 통독해야 한다

시험 전날에는 아침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시간을 3타임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 전날 5과목을 전부 통독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서나 자기만의 서브노트, 오답노트 등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중요한 사항,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본인이 암기가 부족한 사항을 빠르게 훑어 나가면서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단원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2) 시험 전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시험 전날에는 긴장감, 압박감, 부담감으로 쉽사리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험 전날은 되도록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낮잠을 자던 수험생이라도 시험 전날은 되도록 숙면을 위해 낮잠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평소보다 약 1시간 정도 이른 시간에 취침 준비를 마치는 것이 좋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면제 등을 복용하지 말고 따뜻한 우유, 대추차, 허브티 등을 먹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 필기구, 수험표,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

시험 당일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 꼭 챙겨야 할 자료와 신분증 등을 빠뜨리기 일쑤다. 그러므로 시험장에서 꼭 봐야 할 자료(너무 두꺼운 것은 삼가자), 필기구와 수험표, 신분증, 스톱워치 등을 미리 가방에 잘 넣어두는 것이 좋다.

(4) 시험장까지 가는 방법(대중교통편)을 잘 확인해서 메모해두자

자신이 배정받은 시험장까지 가는 길, 교통편은 미리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드디어 D-Day, 시험장에서 해야 할 일

(1) 시험장에는 여유 있게 도착하자

시험장에는 되도록 여유 있게 입실하는 것이 좋다. 간혹 허겁지겁 입실 완료 시간에 딱 맞춰서 입실하는 수험생이 있는데 이렇게 혈레벌떡 시험에 들어온 수험생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9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9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적어도 8시 30분 정도까지는 입실 한 후 막판 초치기, 분치기 등 집중력을 발휘하여 마지막까지 본인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것이 좋다.

(2)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격의 상상을 하자

시험 당일에는 불안감, 긴장감으로 심하게 떨릴 수 있다. 이때에는 가급적 편안하게 심호흡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좋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틀리는 문제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장에서는 누구나 철저히 혼자다. 혼자 해결해야 하고 그 책임도 오로지 혼자 지게 된다. 믿을 사람 역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하자

화장실 등 개인적인 용무는 시험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9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10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없다. 물론 시험 도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혹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4) 답안지를 받으면 기본 사항(수험번호, 성명, 직렬 등)을 꼭 표기하자

답안지를 받으면 감독관의 설명이나 지시에 따라 기본 사항을 꼭 표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수험번호, 직렬, 성명은 체크하고 나서 한번 정도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5)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시간 안배에 힘쓰면서 문제를 해결하자

시험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1년 공부가 무너지게 된다. 문제지를 받고 나서는 스톱워치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안배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문제지를 받고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풀고 모르겠는 문제는 별표나 세모 등 자신만의 표시를 해 두고 넘어간다. 9급 공무원 시험 시간은 100분이므로 마킹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9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75분~80분 내에 잘 알고 있는 문제는 모두 해결하고 나머지 10분 동안에는 답을 선택하지 못한 문제를 빨리 점검해서 풀어야 한다. 만약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6)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마킹을 해야 한다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반드시 모든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답안지에 차례대로 옮겨 적기 시작해야 한다. 시험 당일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평소 마킹을 빨리 실수 없이 하던 수험생도 실수하거나 틀려서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침착한 마음으로 밀려 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답안지에 마킹을 해야 한다. 손에 땀이 나거나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개인 휴지나 손수건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인강으로 공부하며 스파르타 학습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

온라인 동영상 강의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오프라인 학원에 동영상 강의를 더하다!

공무원 수험생 70% 이상이 선호하는 동영상 강의로
자유로운 강사 선택과 선택한 강의의 무제한 수강이 가능합니다.

스타강사



내가 원하는
스타 강사들을
자유롭게 선택

무제한 수강



온라인 강의
무제한
수강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스파르타 관리를 더하다!

공무원 수험생들의 대표적 고충인 나태해짐을 해결해 줄
최적의 학습공간과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지정좌석제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만의 지정좌석제
전용학습관 제공

출결관리



주 6일
09:00~22:00
철저한 출결관리

최적의 학습공간



경쟁의식 고취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학습비용 절감



최소 90만 원의
추가 학습비용 절감
월 평균 독서실비 15만 원 기준

이런 수험생에게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를 추천합니다!

동영상강의가 좋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졌던 수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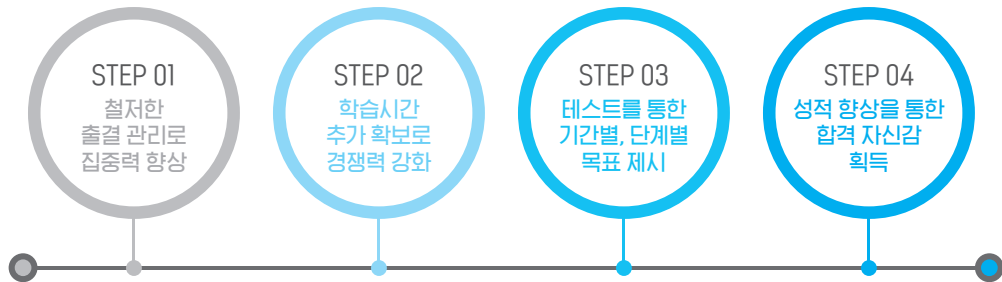
취약부분의 반복학습과
철저한 생활관리를
원하는 수험생

정확한 수험정보와
맞춤형 수험전략이
필요한 수험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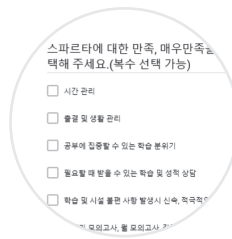
자유로운 강사 선택과
학습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험생

습관을 만들고 실력을 완성하는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데일리 모의고사를 통한
당일 학습점검



최상의
생활 관리

수험생에게 최적화된

맞춤관리시스템

철저한
출결관리

수험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철저한 자기통제로 유혹을 뿌리쳐라!

[시간 / 출결 / 감독시스템 만족도]



91.6 %

10명 중 약 8명 만족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수강생 대상 자체 설문조사(2018년 12월 3일)]



대학교 재학생 70% 이상이 공무원 시험 준비!

노량진 박문각공무원 방문 상담자 중 상담카드 제출자 703명 기준 (2016년 5월~2018년 4월 / 미가입자 제외)

박문각 스파르타로 공무원 1년안에 끝!

성공적인 수험생활과 공무원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
1년안에 합격을 원한다면 박문각 스파르타에서 시작하세요!

+
60
points

합격생 10명 중 6명
6개월 내
평균 60점 상승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2017년 국가직 9급 합격생
전국 모의고사 성적 기준

6개월
합격
완성

합격생 10명 중 3명
6개월 내
공무원 합격 달성

2016년 박문각 스파르타 수험생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합격률까지 기준

+
360
hours

일반수험생 학습시간 대비
6개월 기준
360시간 추가확보

고시1회 & 9월시 카터 공동기획 설문조사 기준
공시생 69.9% 오전 9시 스파르타 66.5% 오전 7시 공무원직

Zero
추가비용

추가비용 & 시간낭비 Zero
노량진 최대규모
스파르타전용학습관

추가 학습비용 및 이동시간 낭비 없는
남/녀 분리 지정파악 전용학습관 제공

수준의 차이가 압도적인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전용혜택

01 지정좌석제 전용학습관



남/녀 분리된 학습환경으로 이동시간 최소화, 경쟁의식 고취 및 집중력 향상

02 1타 강사 및 강의 자율선택



원하는 1타 강사의 강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높아진 선택폭

03 무제한 동영상 강의 제공



수강기간 내내 횟수, 과목 제약 No

04 1:1 맞춤 합격 컨설팅



맞춤형 학습 전략 제공

공무원 합격의 꿈! 시작은 박문각공무원에서!

2019.Best Theme 10選

신규회원



소·확·행



신규회원, 초시생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 선택의 기준!

과목별 베스트 테마 10選 강의를 10일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입만으로 공무원 합격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박문각공무원온라인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은 합격할 권리를 바르게 찾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리더, 박문각공무원온라인은 여러분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박문각공무원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강좌 할인 쿠폰 및 모의고사 응시권은 "나의학습 > 주문조회 > 나의쿠폰"에서 확인하세요.

강좌 할인 혜택

딱 3일간 사용 가능한
강좌 할인쿠폰
10,000원

혜택에 혜택을 더한
강좌 할인 쿠폰
3,000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적립금
1,000원

공무원 합격 가이드 북

공무원 합격을 위한
박문각공무원만의 전략서



초시생이라면 꼭 받아야 할
합격 가이드북

*표지이미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응시권

온라인 모의고사
무료 응시권

정확한 데이터 분석
합격예측 프로그램

"평가>진단>전략 제시"
데이터 기반의 합격 솔루션 제공

모의고사 응시료
최대 5,000원

SINCE 1972,
합격기준 박문각



단과 최강 할인 혜택

공무원
합격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365
Big3**

~~정가 540,000원~~

→ **300,000원**

직종 · 직렬 · 강의유형 자유롭게
44%할인 3강의를 365일 이내 신청

**365
Big5**

~~정가 860,000원~~

→ **400,000원**

원하는 강의만 집중 수강
53%할인 5강의를 365일 이내 신청

2019년
공무원 시험대비



전 과목 무제한 수강

박문각 올패스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 줄 학습 콘텐츠
오직 **박문각 올패스**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과목 제한 無

전 과목 전체 강의 수강

횟수 제한 無

수강 기간 내 무제한 수강

100% 환급

합격 시 현금 환급

수강생 만족도 98.1%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교수 2017년 수강후기 누적점수 기준

결과가 다르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박문각 올패스**입니다.



박문각 올패스의 자신감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요?
꼼꼼히 따져볼수록 박문각 올패스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 줄 학습 콘텐츠
오직 **박문각 올패스**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박문각 올패스 회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과목 제한 無
전 과목 전체 강의 수강!



횟수 제한 無
수강 기간 내 무제한 수강!

100% 환급

합격 시 현금 환급
* 제세공과금 및 제반수수료 제외 후 환급



올패스 프리미엄 학습 관리 시스템



출결관리 시스템

그날 그날 열공현황은 출결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시작



진도별 기출 테스트

최근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영역별 구성



합격예측 모의고사

전국 온/오프 통합으로
치워지는
합격예측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실 좌석제도

실시간 확인되는
온라인 좌석제도



온라인 학습 플래너

철저한 학습계획,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WEEKLY TEST

매주 실전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는
필수과목 테스트



기수별 경쟁시스템

실력 향상과 효율을 위한
기수별 모집

변하지 않는 **박문각 1위***,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주요 과목 교수진은 다릅니다.

*박문각공무원학원+온라인 기준

이미 검증된*
박문각1위 교수진

합격을 생각한다면,
**결국 박문각공무원
온라인입니다.**



이유진 국어
이유진 교수님

변화하는 공시 국어의 답!

답이 보이는 우월한 국어, 이유진 국어

박문각 공무원
국어
1위*

수강생
수
1위**

수강후기
수
1위***

* 박문각공무원 2018. 7. ~2018. 11. 온·오프라인 국어 매출 기준

** 2018년 7월 ~ 11월 박문각공무원 오프라인, 온라인 유/무료 포함 수강건수 기준

*** 2018년 10월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국어 과목 수강후기 건수 기준

박문각공무원 영어 전문가 10년의 노하우

손끝 영어

공무원 영어
강의 경력
10년

수강생
수
1위*

강의
만족도
98.75점**

* 박문각공무원 영어 하프모의고사 수강생 기준(2017년 1월 ~ 2017년 7월)

**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손재석 영어강사 수강후기 누적점수(2018년 1월 ~ 현재)

손끝 영어
손재석 교수님



한국사 독보적 1위*, 선우빈

공무원 한국사 전문가는 걸어온 길부터 다릅니다.

* 2016년 6월~12월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오프라인 한국사 수강생 데이터 기준

공무원 한국사
강의 경력
16년

8년 연속
전타임 마감신화
96회*

수강생
수
1위**

* 2017년 12월 현재, 박문각공무원학원 선우빈 단과, 종합반 전체

** 박문각공무원 학원, 온라인 누적 수강생 기준(2016년 7월 ~ 2017년 6월)



선우한국사
선우빈 교수님

공부 좀 해 본 공시생들은 결국 박문각공무원을 선택합니다.

초시생일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교수님의 수준과 교재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박문각공무원과 함께 합격합니다.



합격의 필수 요건, 행정학 고득점을 원한다면
출제 트렌드를 압도하는 COMPASS 행정학이면 됩니다.



Compass 행정학
신용한 교수님

수강생
수
1위*

행정학
부동의
1위**

강의
만족도
97.75점***

* 박문각공무원학원, 온라인 월별 누적수강생수 1위(2018년 1월 기준)

** 2014년 7월 ~ 2017년 4월 네이버 트렌드 검색량 기준

***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신용한 행정학강사 수강후기 누적점수(2017년 1월 ~ 12월)

따라 올 수 없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의 길
휴먼 사회복지학 어대훈

수강생
수
1위*

베스트
서적
1위**

합격수기
1위***



휴먼 사회복지학
어대훈 교수님

* 박문각공무원학원, 온라인 2018년 1월 ~ 2018년 10월 월별 누적수강생수 기준

** 2018년 1월 10일 기준 'YES24' 사회복지학 검색 기준 베스트 서적 1위

*** 2017년 9공사 합격수기 및 복지와 사람 카페 기준



더 빠른 교정직 합격의 길
정도 교정학 김지훈

교정학
부동의
1위*

수험서
인기도
1위**

강의
만족도
96.62점***



정도 교정학
김지훈 교수님

* 2017년 11월 30일 기준 네이버 검색어/트렌드 조회 기준

** 2018년 1월 10일 기준 'YES24' 교정학 기준 1~4위 모두 석권

*** 박문각공무원 온라인 김지훈 교정학강사 수강후기 누적점수 (2017년 1월 ~ 12월)

